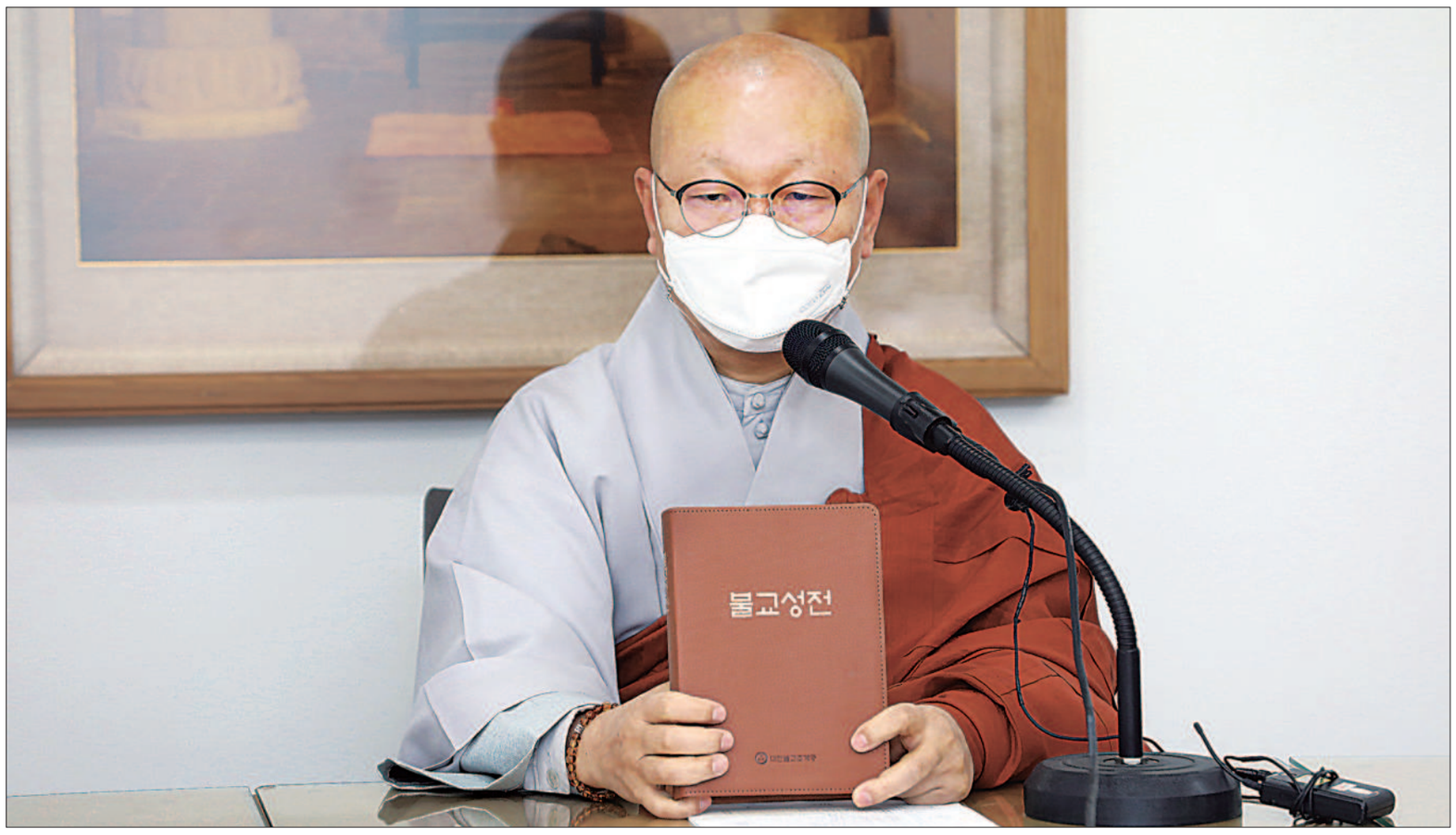
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월 13일)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이것이 조계종 최초 불교성전 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성전〉이 2월 24일 봉정된다. 이에 앞서 2월 17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불교성전편찬추진위 상임위원장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불교성전〉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년 여의 편찬 과정을 거친 〈불교성전〉은 향후 군법당, 병원 등 포교현장을 비롯해 사찰법회, 불교대학 등에서 신행용 ·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첫 〈불교성전〉, 대중 공개 '눈앞'

불교성전편찬추진위, 2월 24일 봉정식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최초 종단본 불교성전이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정되며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추진위원장 원행)는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24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단본 〈불교성전〉 봉정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종단본 〈불교성전〉은 1972년 동국역경원에서 불교성전을 발간한 이후 50년 만에 이뤄지는 현대화된 불교성전으로 종단본으로는 처음 출간된다. 조계종에서는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의 필요성에 따라 2018년부터 불교성전편찬추진위 종령을 제장하고, 편찬기금을 모아 발간 작업을 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편찬을 진두지휘한 추진위 상임위원장 지홍 스님(포교원장)이 직접 나서 발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홍 스님은 "7대 포교원 사업계획 중에서 첫 번째가 불교성전 편찬사업이었고, 두 번째가 불교한글의례집 발간이었다.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의 다섯가지 수행을 담은 수행지침서 또한 펴낼 계획을 가졌다. 세가지 사업을 진행한 것은 불교의 핵심요소기 때문이었다"며 "불교성전은 불교의 '법'을 의미한다. 불법을 체계적으로 누구나 읽고 이해하는 통합된 경전이 성전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불교성전 발간을 계기로 수행과 의례에서도 정립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4장에 부처님 가르침 담아

〈불교성전〉은 대장경의 핵심을 뽑아 모은 책으로 이를 일람해 법문을 발췌하고 다시 검토해 공통분모를 선별했다. 자비, 고 등 키워드 별로 내용을 간추려 체계를 잡았다. 초기경전 · 대승경전 · 선어록 등을 망라하여 특정 주제 안에 여러 불교전통 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총 4장으로 이뤄진 〈불교성전〉은 1장 '거룩한 부처님'에서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을 서사식으로 구성했다. 1장 이후에는 불교 핵심 가르침에 해당하는 여러 경전 내용을 주제 별로 묶었다. 2장 '위대한 가르침'에서는 무상과 무아 등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을 소개한다. 3장 '보살의 길'에서는 믿음과 보시, 계행 등 수행자에게 전하는 말을 모았다. 4장 '불국토 구현'에서는 생명의 소중함, 죽음의 덧없음 등과 재가자의 수행과 출가자의 삶, 부천미 가르침 기준으로 화합하는 중생과 지도자 면면을 다룬다. 성전 뒷부분에 수록된 부록에서는 부처님 당시 인도지도와 4대 성지 모습, 불교사 연표 등도 살펴볼 수 있다.



4장 걸쳐 불교 핵심 담아내
수지독송이 편한 제본 형식
E북 · 증보판 등 개발 필요

법회 교재 활용, 교육용 배포 예정

현재 〈불교성전〉은 1쇄로 4000부 인쇄가 된 상태며, 향후 증보판으로 대중 보급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2년간 대장경에서 뽑은 경전 문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상태로 향후 증보판 등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불교성전〉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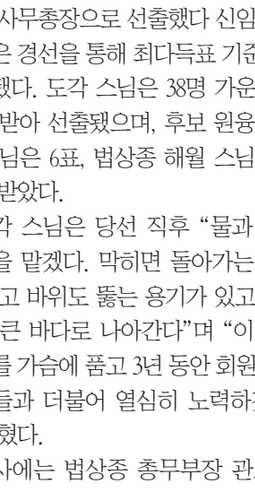
지홍 스님은 "〈불교성전〉이 출간이 되면 법회에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법회에서 주제별로 신도회각 조직에서 불교성전 낭독모임 등에서 활용가능하다"며 "E북이나 오디오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보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교재로서 활용을 하면서 법회도 불교성전을 가지고 할 수 있기에, 지침서가 2차적으로 나와 배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24일 오후 4시 진행되는 불교성전 봉정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표스님들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단 스님 등이 참석한다. 봉정식에서는 경과보고와 봉정, 고불문 낭독, 편찬사 및 발간사 낭독 등이 이뤄진다.

〈불교성전 봉정식 차주 상보〉

종단협 회원 종단들 종교편향 대처 나선다

종단협 18일 올해 첫 이사회서 결의



주요 사업계획 논의 확정
신임 사무총장 도각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가 올해 회원종단에서 발생하는 종교편향 및 훼불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또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올 10월 양산 통도사 등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종단협은 2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축년 제1차 이사회 및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체 임원 39명 중 38명 출석, 불참 1명으로 성원됐으며, 사무총장 선출의 건을 비롯해 임원 변경의 건과 2020년 결산 및 사업결과 보고,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회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더 노력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루빨리 극복하고 종단 본연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단협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종교편향과 관련한 회원종단 공동 대응의 건을 논의하고 사안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키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차별금지법 수정법안 논란과 남양주 수진사 기독교인 방화사건, 연예인들의 개인 신앙표현 등 직 · 간접적인 종교편향 및 훼불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협회 및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및 항의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회원종단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종단협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1단계 단발성 · 경미한 사안, 2단계 훼불사건 및 공공시설 편향 및 조직적 사안, 3단계 중대한 편향 및 훼불사건 등으로 단계별로 분류하고 사무처 대응, 회장단 종단 연대, 이사회 소집 등으로 단계별 논의 구조를 확정했다.

올해 예정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개최와 관련해 장소 및 일정도 다뤘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는 애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로 연기됐다. 종단협은 한국대회 개최를 위한 한중일 예비회의 등을 서면 및 온라인으로 대체키로 하고 이를 사무처에 위임했다. 또 본대회는 양산 통도사와 부산지역에서 10월경 개최되며 평화기원법회와 '세계일화'를 주제로 한 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발표 등으로 이뤄진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민 스님(삼론종 총무원장)의 후임으로 도각 스님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사무총장은 경선을 통해 최다득표 기준으로 확정됐다. 도각 스님은 38명 가운데 21표를 받아 선출됐으며, 후보 원융종 진호 스님은 6표, 법상종 해월 스님은 11표를 받았다.

도각 스님은 당선 직후 "물과 같이 소임을 맡겠다.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고 바위도 뚫는 용기가 있고 결국에는 큰 바다로 나아간다"며 "이 같은 진리를 가슴에 품고 3년 동안 회원 종단 스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법상종 총무부장 관보 스님, 법륜종 총무부장 진명 스님, 정토종 감찰부장 지공 스님이 임명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첫 안건으로 임원 변경의 건이 다뤄졌다. 최근 법화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거암 스님의 종단협 이사 자격에 대한 것으로,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이 종단협 사무처에 거암 스님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시까지 이사 임명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논의됐다. 이에 대해 거암 스님은 자격 논란에 대한 해명 공문을 발송했으며, 종단협은 종단 내부 분규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거암 스님을 일단 이사로 선임한 후 판결에 따라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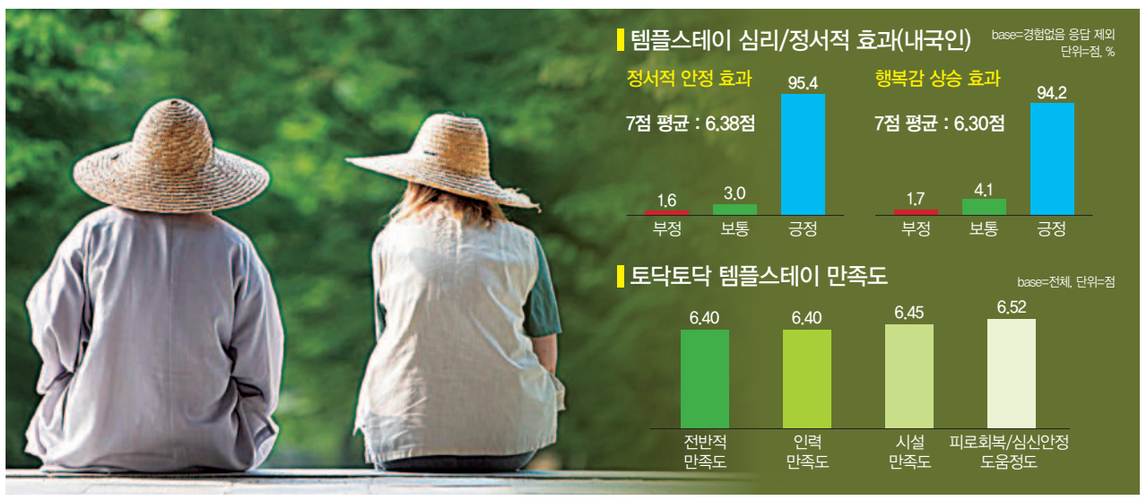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코로나 시대 대국민 힐링 견인

문화사업단, 내외국인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발표

내 · 외국인 만족도 만점 가까워
참가자중 95% "정서 안정" 응답
첫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성공적
템플스테이 인지도 꾸준히 상승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대부분 재충전과 심신 안정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찾아 경험했고, 이를 통해 95%의 참가자들이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 10명 중 2명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했고, 대국민 인지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지난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내 ·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가운데 총 1만 9706명(내국인 1만 8,400명, 외국인 1,3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월 16일 공개했다.

문화사업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템플스테인 내국인 참가자의 종합 만족도는 총 7점 만점에 6.47점, 외국인은 6.49점으로, 내외국인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템플스테이 참가 동기로 내국인은 휴식 및 일상의 재충전을 55.6%로 가장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 자아성찰 및 심신안정이 27.1%였다. 참여 연령은 2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30대(21.9%), 50대(20.2%) 순이었다. 특히 20대 참가율이 지난해 24.5%에서 7% 가량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템플스테이 체험의 심리적, 정서적 효과를 묻는 설문에 대해 내국인 참가자의 약 95%가 "템플스테이 체험 후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함이 상승했다"고 답해 템플스테이의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체험 동기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3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아성찰 및 심신안정이 21.6%,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16.1%, 사찰 프로그램 경험이 10.4%의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참가자의 58.6%가 20대로 앞선 조사보다 약 18%가 높아져 내외국인 모두 20대 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대 3박 4일간 템플스테이를 무료 지원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만족도 조사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참가자 가운데 총 3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총 7점 만점에 6.40점으로, 체험자의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만족도 조사의 세부 항목별로는 피로회복 및 심신안정 도움이 6.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 만족도가 6.45점, 인력 만족도가 6.40점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템플스테이 인지도 조사도 공개됐다. 내국인 남녀 1000명(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인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82.2%가 '템플스테이를 알고 있다' 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조사인 79.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꾸준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 국민 10명 중의 2명 정도인 19.5%가 '템플스테이를 참가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피로를 완화하고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에는 6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를 대다수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불안과 갈등 치유, 심신안정과 힐링에 템플스테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허용오차는 ±0.7%이다.

검찰, 나눔의집 이사들 횡령 의혹 등 모두 '무혐의'

이사 5명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종결
법원도"이사해임 일단 정지"



검찰이 이사 스님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은 나눔의집 전경.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들을 둘러싼 후원금 횡령 등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월주 스님과 성우 스님 등 이사 5명에 대한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제소된 나눔의집 이사 스님 5명에 대해 1월 28일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피의사건 결과통지에 따르면 검찰은 이사 스님들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사 스님들의 무혐의 · 불기소를 확정함에 따라 나눔의집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이사 해임명령 취소 소송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처분한 해임명령의 핵심적인 근거가 후원금 유용 및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의혹 등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회가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음에도, 이사 해임을 명령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강행해 '과도한 행정처분'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인 이사 스님들을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일부 내부직원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언론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사 스님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 법인 이사회 나아가 불교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사 스님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검찰 조사를 통해 나눔의집 이사들에게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해소돼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해임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눔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불교계, 그리고 스님들이 지난 30여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집을 운영해 온 원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월 15일 나눔의집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해임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해임명령의 집행을 일단 중지하되 직무집행정지는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도가 월주 스님과 성우 스님 등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처분한 해임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기 전까지 해임을 사실상 유예한 것으로, 현재 해임명령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이사 권한행사의 범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나눔의집은 애초 2월 16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해임명령에 따라 '이사 해임의 건' 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외한 채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차기 이사회는 3월 2일, 3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범종 · 향림 스님, 종회의원 무투표 당선

중앙선관위, 2월 17일
후보 자격 '이상 없음'

조계종 중앙종회 보궐선거에 고운사와 관음사 단독후보로 나선 범종 스님과 향림 스님이 각각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됐다. 통도사 중앙종회의원은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2월 17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종회의원에 단독출마한 범종 스님과 23교구본사 관음사 종회의원에 단독출마한 향림 스님,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종회의원에 출마한 범용, 보화, 성화 스님의 후보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 후보자인 법종 스님과 향림 스님은 무투표 당선자로 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확정됐다.

범용 · 보화 · 성화 스님 3인이 후보로 출마한 통도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3월 4일 보궐선거를 통해 경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황희 신임 장관, '문화뉴딜'에 관심 요청

2월 17일 원행 스님 예방서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코로나19로 타격입은 종교 · 문화계 활로 모색을 위해 문화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문화뉴딜' 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교계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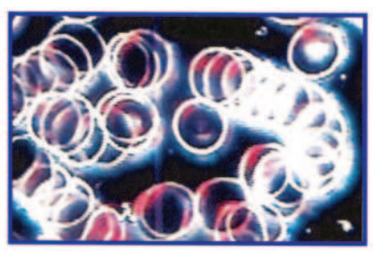
황희 문체부 장관은 2월 17일 취임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돼줬다"며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과 문화 활성화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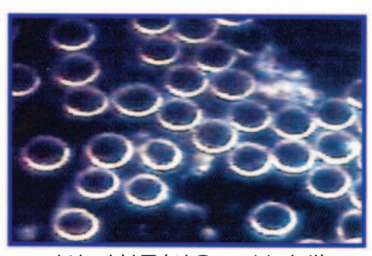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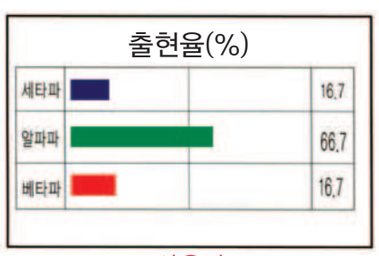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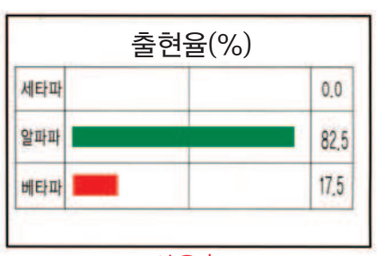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언제 어디서나 신도교육, 불교대학 변화

조계종 디지털대 등 온라인 교육 강화 눈길

디지털대 전용 스튜디오 완비
화계사, 유튜브 전문채널 개설
조계사 · 봉은사, 라이브 진행



조계종 디지털대학은 최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을 위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온라인 강좌를 중심으로 한 불교대학 신도교육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먼저 코로나 후 온라인 신도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폭 증가한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운영하는 조계종 공식 온라인 신도교육기관인 디지털불교대학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불교대학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6월까지의 상반기 1601건에 비해 하반기 5803건으로 262% 증가했다. 올해 진행되는 신도기본교육과정 수강생 수도 2019년 245명에 비해 2021년 288명으로 약 2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신도전문교육과정 수강생은 2019년 75명에 비해 2021년 91명으로 25%가 확장됐다.

이런 관심 속에 불교대학들은 대면 방식의 기존 커리큘럼에 유튜브채널과 네이버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학사운영을 선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온라인 교육기관인 조계종 디지털대학은 최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 진행을 위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스위처 시스템, 오디오믹서, 조명설비 등을 설치하고 쌍방향 소통 온라인 신도교육에 나선다. 매년 2차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문포교사 과정 연수 또한 지난해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로 이뤄졌고, 올해도 온라인 연수로 진행된다.

정규 커리큘럼의 경우 3월 8일까지 일반인 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도전문교육과정과 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포교사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특히 전문포교사과정에는 SNS 포교방법론과 같은 교과목도 포함됐다. (070)8680-9241

화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지난해 진행하던 '화계사 불교대학TV'의 채널을 2개로 확대했다. 화계사불교대학은 신도교육과 병행하는 커리큘럼으로 1학년 기본반, 경전반 강의를 담당하는 1채널과 2학년,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는 2채널로 나눠 문을 열었다.

3월 2일 개강하는 화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1학년(대적광전), 2학년(제일선원), 대학원(제일선원), 경전반(대적광전) 등으로 1학기 수업이 진행되며 각각 불교개론부터 불교사상사, 법화경, 육조단경 등 과목이 개설된다. 강연에 참여 못하는 이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외에도 네이버 카페 '화계사 불교대학'과 네이버밴드 등을 활용해 강연영상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수강등록을 마쳐야 초대된다. (02)997-6469

구독자 3만여 명을 보유한 조계사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도 조계사 불교대학의 온라인 병행에 활용된다. 조계사 불교대학은 3월 10일 주간반이 개강하며, 3월 13일 토요반이 개강한다. 조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유튜브채널에 불교대학 기본교육 맛보기 영상을 업로드한 상태다. 접수 또한 기존 교육국 대면접수 외에 홈페이지(edu.jogyesa.kr)를 통해 쉽게 가능하다.

봉은사의 경우 통합교육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봉은기초학당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봉은사는 이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교육과정을 연기한 바 있다. 3월 2일 개강하는 봉은기초학당(주말반 3월 6일)은 현장강의의 경우 책상 항균필름, 수강생 마스크 착용, 강사 유리칸막이 등으로 방역 속에 진행되며, 대면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네이버 밴드 내 라이브방송을 통해 온라인 수업 출석이 인정된다. 3월 19일 개강하는 봉은불교대학 또한 불교대학원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통해 강의를 듣기만 하면 출석이 인정되도록 배려했다. (02)3218-4900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기존 운영중인 '유튜브불교대학' 강좌 내용을 모아 교재로 쓸 수 있는 '유튜브불교대학 생활법문'도 책으로 펴냈다. 대관음사는 지난해 코로나로 불교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자 빠르게 '유튜브불교대학'을 개설한 바 있다. 약 1000여 편의 강좌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며, 구독자 6만 6000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는 함께 볼 수 있는 책까지 펴내게 된 것이다. (053)474-8228

이밖에 강남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김해바라밀선원 불교대학, 홍법사 불교대학 등 많은 불교대학 들이 온라인 병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생의 삶, 되새기는 한해 되길"

한마음선원, 2월 13일 '대행 선사 탄신 94주년 다례재'

본원다례재 현장, 대표자 참여
전국지원 및 신도 온라인 연결
대행 선사 공생 가르침 되새겨


한마음선원은 2월 13일 안양본원에서 대행 선사 탄신 94주년 다례재를 거행했다.

근현대 불교 포교의 새 장을 연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탄신 94주년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2월 13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탄신 94주년 다례재'를 봉행하며 스님이 전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내면의 정진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마음을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침에 따라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 스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성공양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의 헌다와 헌화, 헌향으로 시작된 다례재는 각 지원 신도들을 대표하여 본원 신도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례재에서 상영된 법문 영상에서는 대행 선사 생전에 설한 생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공생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대행 선사는 영상에서 "자기를 끌고 온 근본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공법이고, 낮든 높든 모두 일체가 높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항상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으로 큰스님 다례재를 모실 수 있어 감사하다"며 "큰스님 가르침대로 '나 자신이 세세생생 내려온 주인공이고 오늘도 주인공이고, 미래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고 미래에도 이 마음 도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실천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정각사, 지역사회에 54년 자비나눔 '귀감'

설맞아 성북구 · 삼선동센터에 기부

은사 광우 스님 40년간 자비나눔
정목 스님 계승해 14년간 지속해


서울 정각사는 설을 맞아 성북구청과 삼선동 주민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울 삼선동 정각사(주지 정목)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이 같은 자비나눔은 스승과 제자까지 장장 54년동안 세대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정각사의 자비나눔은 정각사 창건주 故 광우 스님(2019년 원적) 때부터 시작됐다. 광우 스님은 당신의 생일인 매년 음력 12월 11일을 맞아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공양을 제공하고 선물과 보시금을 드려왔다. 광우 스님의 자비행은 40년 동안 이어졌고, 이는 제자인 정목 스님이 그대로 계승했다.

정각사 주지를 맡게 된 이래 정목 스님은 14년 동안 매년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연말에 지역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비롯해 떡국 떡, 김장김치 등을 제공해 왔다. 또한 사찰 형편이 닿는 대로 어버이날과 복날이면 식당을 예약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등의 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정기법회에 참여하는 신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600~700인분의 김밥을 넉넉하게 구입해 이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시해 왔다.

정목 스님은 "광우 스님께서는 '사찰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매년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공양과 선물, 후원금을 전달하셨다"면서 "은사 스님의 이 같은 자비행을 제자인 제가 계승해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기반한 사찰은 김치 한 포기, 연탄 한 장을 나눠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자비나눔은 사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100년 역사 〈월간 불교〉 복간

십수년간 종단 내홍으로 혼란을 겪었던 태고종이 지난해 종단 안정화 · 정상화의 완전한 기틀을 확보하고, 올해부터는 종단 정체성 강화 및 위상 확립,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면모를 일신한다.

특히 1914년 창간된 〈월간 불교〉를 복간하고 '태고종앱' 개발 및 상용화,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 신설 등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활동을 본격화한다.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순천시, 조계종과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화합 차원에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2월 8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태고종은 올 3월 〈월간 불교〉를 재발간한다. 〈월간 불교〉는 1914년 권상로 스님에 의해 창간됐다가 1931년 한용운 스님이 이어받아 항일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던 불교 전문 잡지다. 1970년 태고종과 조계종과 분리된 후 태고종이 지속적으로 발행해 오던 중,

호명 스님, 2월 8일 기자회견
올해 정체성 · 위상 강화 매진

종단이 혼란했던 2014년 이후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다 2018년 이후에는 발간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5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 제782호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호명 스님은 "〈월간 불교〉가 가진 역사와 가치에도 그간 종단 혼란으로 제대로 발행이 되지 못했고 그 형태와 내용도 대단히 미흡해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재발간될 〈월간 불교〉는 한국불교 最古 역사를 지닌 잡지로서 한용운 스님의 서체와 옛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고 창간 취지와 목적,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과거의 위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태고종은 또 올 3월 중 '태고종앱'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선다. 태고종 앱은 전국 사찰과 종도, 신도들의 포교활성화와 사찰경영 편리화, 교육 및 신행생활 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단 홈페이지 기능은 물론 기본적인 종무행정의 기능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종단 위상 제고와 외연확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올 11월 '제1회 한국불교 신춘문예'를 신설하고 불자 뿐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학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한편, 대국민봉사활동 및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대대적으로 봉행한다.

한편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의 법정대립에 대해서는 "소송보다는 대화와 화합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국불교를 위해 이로울 것으로 본다"고 의중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19대 집행부 출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교불련이 앞장 서겠습니다

제19대 집행부 (임기 : 2021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고문 : 역대회장 ● 지도위원(30인) : 이황우(동국대), 황진수(한성대), 이인자(경기대), 조현춘(경북대), 박광서(서강대), 김인수(부산교육대), 강인수(수원대), 신준식(대구대), 강수균(대구대), 박영병(부경대), 강동균(동아대), 곽도영(동국대), 박학길(동아대), 오윤표(동아대), 차득근(동의대), 곽만연(동아대), 김대열(동국대), 송운석(단국대), 박차수(동의과학대), 정영철(순천대), 김선숙(동덕여대), 정태권(해양대), 김철진(경북전문대), 도태성(영진전문대), 김남경(경북대), 김보영(대구예술대), 이상희(대구폴리텍), 서보혁(경북대), 이광철(한양대), 전재목(대구폴리텍) ● 명예회장 : 김성규(영남대) ● 회장 : 송일호(동국대) ● 법인이사회(회장 포함 총50인) : ● 부회장(21인) : 박상진(동국대), 조정식(동국대), 황순일(동국대), 박명호(동국대), 장상목(동아대), 송윤미(강원대), 고대만(제주대), 이상훈(대전대), 조남호(교통대), 김경회(대구대), 안경식(부산대), 이규갑(연세대), 김환기(동국대), 성해준(동명대), 석길암(동국대 경주), 장호경(대구한의대), 김응철(중앙승가대), 이준일(대구보건대), 장재진(동명대), 최응천(동국대), 최용민(위덕대) ● 이사(28인) : 조윤오(동국대), 김대영(동국대), 이동식(경북대), 성희자(경북대), 전영준(제주대), 김현석(동국대), 강규영(동국대), 이영숙(동국대), 류정호(동국대), 변부형(대구한의대), 박수호(중앙승가대), 이동석(동국대 경주), 김재은(동국대), 남진숙(동국대), 김선희(동국대), 박진근(대전대), 김종혁(대전대), 홍선기(국회연수원), 이윤호(대구대), 성정석(동국대), 서영권(동국대), 홍성규(동국대), 황재현(동국대), 정덕스님(동국대), 전병훈(동국대), 이세연(동국대), 김연미(이화여대), 김중관(동국대) ● 감사 : 김형상(동국대), 김한철(영남대)

2021년 교불련 사업계획

◎ 한국교수불자대회(7월) ◎ 교수불자연합학회지(KCI등재지)발간(4월, 8월, 12월)
◎ 불교미래포럼(4월, 10월) ◎ 원로자문위원회(5월, 11월) ◎ 불교미술 및 서화전시회(9월) 외 다수

동국대, 건학이념 구현 본격 나선다

이사회서 정관세칙 개정… 건학위 구성 가능

산하 학교 · 기관들 적극 동참
신임 의료원장에 채석래 선임
올해의 사업 예산안 승인확정
성우 스님, 발전 기금 쾌척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가 학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산하 대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등에 건학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9일 제334차 이사회를 열고 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건학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정관세칙 변경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관세칙에 건학위원회 목적과 운영, 사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인은 산하 대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부속병원 등 각급학교와 기관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건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 사무는 법인사무처가 담당하며, 위원회 조직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재규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정관세칙 변경에는 교육 · 의료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명확화와 법사 임용에 '자격, 임기'를 반영하는 조항들도 개정 · 신설됐다.

건학위원회 설치가 이뤄짐에 따라 법인사무처, 동국대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등도 건학이념 구현 사업을 올해 주요 사업들로 예고했다.

법인사무처는 정관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2월 중 건학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 · 활동 계획을 정리해 올해 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학내 건학위원회 구성과 건학이념 실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관련 교양 교과 개발도 추진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건학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관련 교양 과목 · 통일 교재 개발을 올해 주요계획으로 내놨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서 △정관 변경 △동국대 의료원장 선임 △교원 인사 △법인직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2021회계연도 각급기관 예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의료원 시설대여(리스) 승인 △불용자산 폐기(매각) 승인 △의료미수금 대손상각 승인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관 변경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사장의 산하학교 겸직이 금지되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기존 3개월서 1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또한 대학평의회 위원으로 조교도 포함하게 됐다.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는 채석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동국대 의료원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의료원장 후보자를 모집했으며, 심사를 통해 6명의 후보자 중 채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채 교수는 제5, 7대 동국대일산병원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진단혈액학회장, 대한수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36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2021회계연도 각급기관 예산(안) 승인도 이뤄짐에 따라 법인 일반회계 204억 원, 동국대 서울캠퍼스 2294억 원, 경주캠퍼스 1080억 원, 의료원 3514억 원, 법인 수입회계 131억원, 산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423억원 등 총 7624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8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법인 중간감사 이행계획과 올해 각 기관 중점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법인은 매주 산하학교 행정실장 주례회의 열고 학교 현안을 점검키로 했으며,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및 법인 감사를 시행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일산 바이오캠퍼스 발전을 위해 BMC발전위원회 구성하고 캠퍼스 단위의 준공허가를 추진한다.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후속 사업으로 'K-부디즘 문화콘텐츠' 사업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폐지 학과에 대한 원할한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사회 회의에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학교 발전 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성우 스님은 "지난 회의에서 이사 원명 스님이 거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하는 것을 보며, 저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기금이 동국대와 각 교육기관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故속행 노동자 49재 등 이주민 추모법회 잇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 · 마주협 2월 7일 법련사서 추모재

지난해 12월 20일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추위에 숨진 故 누온 속행씨 등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단체와 다문화 법당 등을 주축으로 한 추모법석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대표 호산)는 2월 7일 서울 법련사에서 '故 속행 노동자 49재 및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린사로 스님이 집전한 캄보디아불교식 염불에 이어, 사노위 위원 스님들의 한국불교식 염불과 추모의식으로 진행됐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중들은 故 속행씨의 영전에 흰 국화를 올리고 절을 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참석자들은 속행씨의 넋을 위로하는 동시에 그동안 한국에서 죽어간 이름없는 이주노동자 모두에 대한 위로와 재발방지를 발원했다.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도 2월 7일 마하위하라 사원도 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담마끼띠 스님에 따르면 재한 스리랑카 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울증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한 자살자만 20명에 달한다. 특히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고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게 된 이주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네팔도 마찬가지다. 일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네팔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및 자살 건수도 예년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네팔의 경우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네팔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우르겐 스님도 현재 심근경색 등으로 투병 중이어서, 이주민들이 심리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캄보디아불교센터 주지 린사로 스님은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과 인력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인생과 인권, 인격을 생각해 주는 가운데 더불어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미얀마 사태 격화일로…승단, '쿠데타 반대'

미얀마평화승단, 2월6일 성명
시따구 佛法 아카데미도 동참
각 사찰 등 규탄 입장 이어져

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일으킨 쿠데타로 미얀마 전역이 통제된 가운데, 군부에 반대하는 미얀마 승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군부가 우 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등 정부 수장 등을 감금하고 반대파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규탄 여론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얀마 승단은 지난 2월 7일 처음으로 쿠데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 승려 한 명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교계는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쿠데타 반대 입장과 평화 발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얀마평화승단연합회(PSU)는 2월 6일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독재적인 군부의 법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얀마 평화승단연합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길로 갈 수 있게 승단의 목소리를 내고,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불복종 운동(CDM)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표했다.

미얀마의 정신적 스승인 시따구 스님을 따르는 불교인단체인 '시따구 佛法 아카데미' 도 2월 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따구 아카데미는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있으며, 시따구 佛法 아카데미 단체도 시민들과 같은 마음"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와 정부를 시따구 불법(佛法) 아카데미 단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쿠데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시따구 아카데미는 특히 "국민의 평화를 우선하지 않는 조직은 올바른 조직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부가 나서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미얀마 만달레이 마쏘예잉 사찰의 스님들도 이번 군부 쿠데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을 본지에 제공한 미얀마전법사원 우웃따라 스님은 "본국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이 빨리 끝나기 위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 등 세계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ON · OFF 믹스' 신개념 노인복지 추진

2월 16일 종로 노인복지관
온라인 기자간담회서 밝혀
유튜브와 카카오톡도 활용
온라인병행 서비스를 제공
시니어의 디지털교육 전개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언택트 복지서비스를 선보인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이 새해 온 · 오프라인을 융합한 온 · 오프 믹스 복지에 나선다.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과 함께, 각종 행사의 온라인 전개 등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6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해 언론사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은 5개년 계획 소개와 함께 올해 온 · 오프 믹스 복지서비스 방침을 밝혔다.

관장 정관 스님은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복지노하우를 익혀 사업 계획을 짰다"며 "인권 가치 중심, 소통, 공존, 미래예측의 복지 프로세스 확립 등을 기치로 걸고 온 · 오프 믹스 복지서비스로 참여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겠다"고 소개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이미 개설한 유튜브채널 '종로의 품격'과 카카오톡채널을 활성화하고, 언택트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시니어슈퍼스타종로 행사의 경우 유튜브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어르신 가정을 연결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인권모니터링단 노인자원봉사 영상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도 수상했다.

정관 스님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디지털 에이징 교육도 확대해 기초, 심화, 키오스크 교육 등도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과 함께 어르신 장담그기 행사인 종로&장금이 사업의 레시피 e북 출간, 제4회 서울시니어연극제의 온라인 병행 추진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했을 때 40% 어르신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다. 코로나에서 16개 가정에서 IT교육을 진행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 10인 이하 프로그램 진행이 되기에 전사적인 리터리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관에 오지 않아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로노인복지관은 강화되고 있는 복지 인권 증대를 위해 전사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5대 차별행위 규정 인권기반 실천체계를 정착시킨다. 어르신 중 남성이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남성 어르신을 위한 성평등 프로그램도 운영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등도 개소한다.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를 조성, 커뮤니티 공간 공유 등도 준비하며, 재택근무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문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 운영, 복지관 앱도 개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화종 정상화 위해 전 종도 동참 당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 13대 종정 도선 스님



대한불교법화종이 혼란스럽다. 지난해 1월 전 총무원장 스님의 법정 구속 이후 총무원장 서리가 두 번 교체되는 등 종단의 중심인 총무원이 좀처럼 정상화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11일 우여곡절 끝에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20대 총무원장에 거암 스님이 선출됐지만, 전과와 이중승적, 제적으로 인한 자격논란이 직무집행정지 소송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월 19일 법화종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된 도선 스님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도선 스님〈사진 오른쪽〉은 최근 종정교시를 발표하고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임명을 판결 시까지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식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후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종단 안팎의 혼란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화종 총무원장은 종회 선거를 거쳐 종정이 임명한다(종헌 제37조).

도선 스님은 종단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종도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법화종이 정상화는 물론이고, 재도약을 통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스님은 “해법은 늘 있지만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사리사욕이 끼다보니 종권을 두고 갈등이 지속된 것 같다”며 “지난 세월 종단 일을 어둡게 이끌어 온 일부 인사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법화종이 온전하고 바르게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종도들이 애종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종단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화종으로 전종할 당시의 종단 위상도 되새겼다. 도선 스님에 따르면 법화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창립 종단이자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창종한 종단이다. 도선 스님 입종 당시 법화종은 전성기였다. 종정과 원로 · 대덕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총무원청사 건립을 발원하고 탁발과 십시일반 후원금 모연 등으로 서울 성북구에 청사 건물을 짓고 포교의 전기를 마련했다.

스님은 “당시에는 각 지역의 유능한 스님들이 학식을 교류하며 제자 양성에 주력했고, 2500여 사암의 힘이 모인 종단 차원에서 경승 군종 활동 등의 전방위적인 포교활동에 힘을 썼다”며 “그랬기에 나 역시 큰 기대와 포부를 안고 기꺼이 법화종도가 됐다. 다수의 변화보다 홀로이 수행하고 부처님을 모시기를 원했기에 더없이 좋은 종단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는 현재 직면한 종단 현실이 더욱 참담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종단협 소속 30개 종단 중 의전순위 29위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의전 순서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불교 발전에 앞장섰던 우리 종단의 위상이 그리 추락되었다니 안타깝다”며 “부질없는 영화 속에 빠져 쇠락하는 줄도 모르고 도태되어 온 현 세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한탄했다.

스님은 “원로의원으로 종단 소식을 접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우리 종단의 쇄락은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재를 주도한 임원, 그들을 도와 기생하려는 소수, 외부에서 등장한 이권 세력들에 의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수가 이에 속고 무관심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선대 조사와 종정, 원로 · 대덕 스님들이 일궈놓은 전통 종단을 오늘날 후학들이 더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종권 다툼의 끝없는 모습들로 인해 종도와 불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도선 스님이 종정에 추대된 후 각고의 고민 끝에 “종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같은 안타까움의 발로인 셈이다.

스님은 종단 정상화 기치로 ‘원융화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무너진 종헌 · 종법과 종지 · 종통을 바로 세우고 종단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곧 종단 안정의 토대가 될 것이란 신념이다.

“화합은 모두의 참회로 시작하고 바로잡힌 질서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덮는 것은 화합이 아닙니다. 책임은 책임대로, 개선은 개선대로 이뤄져야 하며, 모두가 사심 없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초월하는 부처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말로 하는 화합이 아닌 질서와 책임으로 이어지는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모두가 종단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관심과 참여만이 부패와 쇠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종단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 바랍니다.”

도선 스님은

1968년 영천 은해사에서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으며, 1974년 합천 해인사에서 비구계 수지, 1977년 조계종 영덕 관음사 주지와 1981년 경주 불국사 감찰국장 소임을 역임했다. 이후 법화종에 입종해 1996년부터 법화종 의성 수도암 주지를 맡고 있다. 2008년 종사 법계를 취득하고 2015년 원로의원으로 위촉됐으며, 올 1월 19일 법화종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종 정 교 시

선대 조사와 종정, 원로 · 대덕 스님들의 공덕으로 한국 불교계의 한 축이었던 우리 대한불교법화종이 오늘날은 부패와 혼란으로 쇠락해져 있습니다. 부패와 혼란에 지치고 실망한 종도들과 사암들이 떠나고 나니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 종단이 비참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 종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은 스님들에게 하교하는 바입니다.

총무원장 당선인 스님은 본인에 대한 자격 검증에 관례를 들어 행하지 말고 법적인 증명이 끝나 정식 임명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볼 것이며, 대내외 종헌종법의 종단 대표자로서의 활동은 일체 보류합니다. 종단의 혼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애종심을 갖고 헤아려보십시오. 사문으로서의 자존에 부끄럽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중앙종회의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본분을 잊지 말 것이며 총무원의 최소 행정을 감시하여 공백 행정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전국 각 교구종무원장 스님들은 중앙행정의 공백을 참작하여 보다 치밀한 교구행정으로 종도들의 불편을 줄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종단에 대해 종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뜻을 낼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원로 대덕스님들께서는 종도들의 눈을 밝혀 바른길로 이끌어주시고 종단이 파화합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옳음에 대한 인지를 주지시켜주십시오.

법화일승의 가치를 잊지 않고 과거의 영화를 찾아 깨끗한 종단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온 종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온 종도들의 발심에서 시작될지니 부디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말고 뜻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65년 2월 9일

대한불교법화종 종 정 도 선

법화종 관련 법령

종헌(宗憲)

제4장 종정

제16조 종정의 임기는 추대일로부터 만 5년으로 하고 재추대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 종정은 총무원장 포교원장을 종회의 선거를 경하여 임명하고 종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승니에게 법계 및 상을 수여한다.

제7장 총무원

제37조 총무원장은 종회의 선거를 거쳐 종정이 임명한다.

제17장 상벌 포상

제90조 징계는 다음 방법으로 행한다.

징계적용

1. 치탈도첩, 제적 및 종권박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치탈도첩 또는 제적, 종권박탈 처분의 징계에 처한다.

나. 종정 교시를 위배한 자.

바. 본종 승적을 취득하고 타 종단의 승적을 가진 자.

종법(宗法)

총무원법(總務院法)

제1장 총칙

제2조 본원의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종무직원법(종무직원법)

제1장 자격요건

제5조 ① 하(下)의 각(各) 호(號)의 1의 해당하는 자는 종무직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국법에 의하여 복권된 자는 예외로 한다. 종단 공무상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는 상기 사항을 면책받는다.

다. 종권정지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자.

② 종무직원의 재임 중 전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는 당연 해임된다.

‘정해학당’, 온라인 강의로 새 활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모델로 성장

온라인 경전 강의 참여도 높아
서울 개원 이끌어낸 성과 눈길
경전 공부 즐거움 시공간 넘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안동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이 ‘줌(zoom) 온라인 경전 강의’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12년 동안 이어온 오경 스님의 경전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 강의 중단으로 온라인 강의 전환 후 뜻밖의 성과를 거둬 코로나 시대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안동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원장 오경)은 ‘줌(zoom) 온라인 경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오경 스님의 zoom 경전 강의에는 부산, 안동, 대구, 서울 등지에서 40여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수강생 30명에 서울 정해학당까지 포함해 최근 수강생이 10여 명 더 늘었으며 지속적으로 회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줌(zoom) 온라인 경전 강의를 통해 새롭게 서울 지역에서는 비대면 개원도 진행됐다. 기존 부산, 안동, 대구에서 개원을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서울은 미뤄지고 있었다. 오히려 줌(zoom) 온라인 경전 강의를 통해 서울 사람들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강의를 듣게 됨으로 개원까지 이르게 됐다.

정해학당은 2009년 부산에서 개원 후 서울, 부산, 안동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서도 12년 동안 휴강이 없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오경 스님의 ‘정해학당’ 경전 강의는 대면 강의가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휴강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처음 휴강 때는 다음 주면 재개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 휴강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도 ‘이대로 강의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꼈다. 대책이 시급했고 스님은 반신반의하면서 줌(zoom) 강의를 시작했다.

오경 스님은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마이크만 앞에 놓고 혼자 강의를 하는 게 되겠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하니 집중도 잘되고 수강생들은 일대일로 강의를 듣는 것 같아 더 집중하게 됐다”며 “게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절약되니 세 시간 강의가 끝나도 1시간 정도 더 논강을 하게 되어 공부 열기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코로나로 대면 법회를 못한다면 온라인 법회나 강의를 걱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다.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면강의가 불가능한 사람도 온라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꼽고 있다.

오경 스님의 강의는 기본 세 시간 동안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된다. 현재 정해학당 온라인 강의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에는 대승기신론 해동소,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7시~10시에는 금강경 오가해 강의가 진행된다. 처음부터 수강하지 않아도 반복해 경전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정해학당은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강의가 가능해져도 온라인 강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분기별로 나누어 대면 수업을 진행해 온라인 수업의 한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강의 신청 문의는 안동 보경사(054-842-4080)로 하면 된다.

오경 스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경전 공부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경 스님의 경전 강의는 멀리서 듣고 찾아갈 정도로 명강의로 인정받고 있다. 스님은 정해학당 개원 전부터 화엄학림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인재불사 도량 굳건히”

2월15일 대웅전 법당서 2021년 장학금 전달식

대행선사 유훈 잇기 위해 힘든 시기지만 인재 불사
호계고등학교 졸업생 4명 총300만원 장학금 지원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2월 15일 대웅전에서 2021년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코로나 기간에도 지속적인 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을 지지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2월 15일 대웅전 법당에서 2021년 장학금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지원장 혜안 스님, 조영록 호계고등학교 교장, 정명득 3학년 부장, 호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이번 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며 울산과학대, 울산대, 동서대, 영남대 등에 합격했다. 조영록 호계고 교장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장학금은 총 300만원이다.

학생들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성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것처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원장 혜안 스님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응원하며 지원해주신 기금은 학생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며 “오늘 참석한 학생들은 잘 성장해 가정과 나라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성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영록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인데 스님과 불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해주신 장학금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학생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장학 지원 사업은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소아암환자를 위한 합창제에서 대행 선사는 울산 북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고 지원장 혜안 스님은 묵묵히 유훈을 잇고 있다.

지원장 혜안 스님은 “당시 울산 북구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은 불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모님을 위해 등을 만들고 기도하는 효심을 보였다”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대행 선사의 유훈을 잇기 위해 스님과 불자들은 도량 곳곳에서 장학지원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다실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모두 장학재단에 활용되고 동지 때는 팥죽을 만들어 장학기금을 모았다. 각 신행단체는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불자들은 종무소를 방문해 십시일반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인재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울산=하성미 기자

정토마을, ‘법화경 21일 장좌기도’ 회향

21일 간 릴레이 기도, 대표 기도법으로 자리해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국경없는민들레(원장 능행 · 이하 국경없는민들레)는 2월 6일 정토마을 대법당 및 정토마을 앞마당에서 ‘신축년 법화경 21일 독송 장좌기도’에 입재했다.

정토마을 장좌기도는 신년을 맞아 진행하는 정토마을 대표기도로 올해 13회를 맞았다. 21일 간 20여 명의 스님들은 〈법화경〉을 독송하고 생명을 위한 자비심을 위해 기도한다. 회향을 맞으면 경주 감포 문무왕릉을 방문해 방생한 후 마무리 된다. 이번 해 회향은 2월 26일이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코로나19에도 지구촌 곳곳에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며 생명을 위한 나눔 보살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2억 7122만원을 모금해 해외 오지에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뿐 아니라 진료소 건립, 의료봉사 등 국제 의료봉사를 실천해 왔다.

국경없는민들레는 그 힘의 원천을 법화경 장좌기도에서 찾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용호복지관, ‘용호통합방과후 학교’ 선정

2월 15일, 부산교육청 업무 협약 체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2021년도 ‘용호통합 방과후학교’에 선정됐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2월 15일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적 한계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소질 및 적성계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방과후학교는 남구 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패키지과정을 제공하며 안전도우미 및 통학버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 · 하교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용호통합방과후 학교는 남구 내 10개 초등학교와 협약하여 4월에 개강하며 운영과목은 창의력쑥쑥과정(국 · 영 · 수, 코딩, 미술), 성장쑥쑥과정(국 · 영 · 수, 신체활동, 보드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목은 개별신청도 가능하여 가정에서 과목선택 후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다.

하성미 기자

창원불교聯, 제31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창원시불교연합회가 설날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와 금강자비회(이사장 원문)는 2월 5일 창원시청 2층 시청회의실에서 ‘제31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펼쳤다.

매년 명절인 설날에 창원불교연합회는 지역민을 초대해 연회를 진행하고 자비나눔으로 행복을 기원했지만 이번 해는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위해 비대면 지정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40명에게 각 70만원 총2800만원, 모범청소년 30명에게 금강장학금 50만원 총 1500만원, 무의탁 노인 백미 지원금은 25명에게 20만원 총 500만원, 창원시 시각장애인협회에 200만원, 총 5000만원이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고문 원행 스님,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 스님,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수요양병원, 건강보험 평가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87.2점 기록

타 병원 대비해 높은 점수
호텔급 의료 및 돌봄 제공
통증 및 생활 개선 압도적
응급상황시 대처능력 우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리수요양병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조계종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이사장 현법)이 운영하는 김포 보리수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보리수요양병원은 종합점수 87.2점을 받아 1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평균이 69.9점, 동일규모 요양병원 평균이 69.6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임을 알 수 있다.

이번 평가는 구조부문, 진료부문 등 15개 지표를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해, 종합점수 구간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리수요양병원은 의사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환자 치료결과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는 '0'을 기록했고,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개선된 환자분율이 전체평균(57.5)에 비해 30점 가량 높은 84.6을 받았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개선된 환자분율은 다른 병원 평균(13.4)에 비해 5배정도 높은 60.8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보리수요양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는 인증평가를 통과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유효기간은 2020년 10월4일부터 2024년 10월3일까지다. 4년마다 진행되는 인증평가를 통과함으로써 보리수요양원은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을 공인 받았다.

동행의료재단 이사장 현법 스님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현하는 보리수요양병원은 첫째 '최선의 의료서비스', 둘째 '함께하는 병원', 셋째 '환자중심의 병원' 등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중증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과 호텔처럼 깨끗하고 안락한 시설을 유지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는다"며 "보리수요양병원 의료진 또한 자비심으로 환자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최적의 진료와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노인환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오랜 투병생활과 힘든 치료로 지친 고령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건강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원한 보리수요양병원은 한강변에 인접한 전통사찰인 김포 용화사 경내에 위치해 있다. 병원은 연면적 449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80 병상을 갖추고 있다.

지하식당을 비롯해 집중치료실,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한방진료실, 일반병실, 상급병실 등이 있다.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양의 4명, 한의 1명 등 총 5명의 진료원장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한다. 병원 집중치료실에 인공호흡기가 비치돼 있어 중증환자들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CRE. VRE 감염병실도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불자들을 위한 대표요양병원으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031)999-5821

동국대부속영석고 '다목적체육관' 준공

학교법인, 사업비 6억 원 지원…"학교 숙원사업 해결"


동국대부속영석고 다목적 체육관 전경.

의정부지역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한 동국대부속영석고등학교(교장 오종환)에 최첨단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됐다. 학교법인 동국대가 법인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공한 다목적체육관은 향후 학생들의 체육 환경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부속영석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체육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준공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다목적체육관은 학교 정문 우측 부지에 필로티 구조의 지상 2층, 1,485.26㎡ 규모로 마련됐다. 체육관은 농구, 배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운동경기에 필요한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이번에 준공된 다목적체육관은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5월 착공됐으며, 학교법인 지원금 6억 원을 포함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등 총사업비 33억이 투입됐다.

이에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는 지난해 4월 제329회 이사회를 통해 '동국대부속영석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을 승인,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체육관 준공으로 학생들은 우천, 미세먼지 등 날씨와 관계없이 개선된 환경에서 체육수업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종환 영석고 교장은 "쾌적한 체육환경과 여가 향유 공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군산 성흥사, 설맞이 군산교도소 나눔

성흥사 신도회와 함께 초코파이 1000박스 전달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이 군산교도소에 초코파이 1000 박스를 전달했다.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주지 보위 스님, 김승수 신도회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홍순철 군산교도소장에게 초코파이 100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 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송월 스님과 성흥사 신도회가 마련했다. 송월 스님은 해마다 명절이면 군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한 명절 차례를 지원해왔다.

송월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명절 차례가 어려워지며 수용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신도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산 정법사 2021 수계식 거행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는 2월 6일 정법사 만불전에서 수계의식을 개최했다. 수계식은 △개식 △거향찬 △대비주 △청성 △청사 △개도 △삼귀의 △오계 △참회 △연비 △삼귀의 △오계 △발원 △회향 △계첩수여 △회향게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부주지 송정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무릇 계는 도덕적 행위, 경건한 생활,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의미한다"며 "계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 되며 장차 부처님이 되는 근본이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 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암사 승가교육 위한 특별강원 개강

3월 3일 개강식 예정돼
강원교육 미이수 입학 특전


지난해 진행된 선암사 특별강원 강좌 모습. 30여 스님이 향학열을 불태웠다.

제대로 된 승가교육을 받지 못한 스님들을 위한 전통강원이 개강한다.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시각)는 3월 3일 '선암사 특별강원'을 개강하고, 전통식 불교 강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스님들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한다.

선암사 특별강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사운영을 진행했지만, 30여 스님들이 입학해 공부하면서 열띤 향학열을 보였던 곳이다. 선암사 전통강원에는 종단 구별 없이 모든 스님이 입학 가능하며,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가 수여된다. 한 학년 수강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도 수여된다.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이 가능하다.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은 희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일정은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이다.

특별강원의 특징은 통학하며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년별 교과목은 1학년(치문반, 초발심자경문 치문), 2학년(사집반, 서장 선요 도서 절요), 3학년(사교반,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4학년(대교반, 화엄경) 등으로 진행된다. 공통교육은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등이다.

강사는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 스님, 각안 스님을 비롯해 외래 초빙 전문가(스님 및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선암사 전통 강원은 2월 28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주지 시각 스님은 "여건상 전통강원을 열 수 없는 종단이 많아 작년에 처음 개강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입학한 스님들의 학구열이 높아 감사하다"며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한 스님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암사 강원에서의 교육은 불교의 전통성을 잇는 중요한 과정이니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지장암, 자비의쌀 전달



광주 지장암(주지 서경)은 2월 16일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를 통해 지역 불교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서경 스님은 "요즘 사찰에서도 쌀을 구입해 먹는 시대다. 하지만 '쌀 공양'이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이기에 자비의 쌀을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음을 내어 주신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쌀은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지역의 불교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전해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org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4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1일(수)**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400만원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3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1일(수)**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8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1. 3. 20.(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제1주제 (밀교의 시각으로 본 대행스님의 '주인공' -『한마음요전』을 통하여-)
발표 : 강대현(위덕대) 좌장 : 권기현(위덕대)
논평 : 1. 정성준(동국대) 2. 이석환(동국대)

□제2주제 (한국 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 의미)
발표 : 도윤수(인하대) 좌장 : 문명대(동국대)
논평 : 1. 법우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2. 김기상(아리건설 대표)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우주에도 '절'이…위성사찰 설치 추진

日진언종, 테라스페이스와 MOU

각종 재해서 전승 필요
사물 인터넷 위성 속엔
대일여래상 등 설치돼
우주 인터넷 법회 예정

박영빈 객원 기자



우주에 인공위성으로 조성될 우주사찰 고운지. 사진출처=고운지 공식홈페이지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 손꼽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와 불교가 만났다.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 우주에서 세계평화를 비는 우주공간의 사찰이 탄생할 예정이다. 지난 2월 4일 일본의 '포브스 재팬', '교토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교토 고찰과 Iot의 접목을 특별 보도했다.

Iot 기술은 고유식별이 가능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환경을 말한다. Iot는 기존의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했던 블루투스나 센서 데이터와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 간에 서로 자체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1일 교토의 천년고찰이자 진언종 다이고지파의 총본산인 다이고지(醍醐寺)는 인공위성개발에 착수한 민간기업 '테라스페이스' 와 업무기술제휴를 체결했다. 오는 2023년 발사할 예정인 Iot위성에 우주사찰 '죠텐인 고운지(浄天院劫蘊寺)' 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사찰을 우주에 세우는 것으로 하늘을 정화한다는 뜻에서 사명을 '죠텐인(浄天院)', 한 우주가 생겨나고 소멸하는 시간인 겁(劫)과 인간의 기본 구성요소인 오온(五蘊)에서 따와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뜻으로 '고운지(劫蘊寺)' 라는 이름도 더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산내에 막대한 양의 성보와 문화재를 보유한 다이고지가 화재를 비롯한 재해와 도난 등의 문제를 사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제를 고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교토시 히가시야마(東山) 지구의 다이고산 전체가 다이고지의 사역인데다, 가람이 산 위와 산 아래의 두 구역에 산재해 있어 사찰 자체의 인원과 시스템만으로는 재해와 도난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다이고지는 2008년 산 위의 가람에서 낙뢰로 화재가 발생해 본당은 물론 수백 년간 봉안해 온 본존불인 여의륜관음상까지 전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다이고지는 사람의 조작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서 우주에서 사찰을 바라 볼 수 있는 Iot위성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 위성을 통해 Iot 시스템을 운용하고 다이고지의 모습을 그대로 우주에 띄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오는 2023년 발사될 6U사이즈(약 20x10x30cm)의 초소형 인공위성의 절반에는 Iot시스템 설비가, 절반에는 진언종의 본존인 대일여래상과 양계만다라가 봉안될 예정이다. 위성은 지구상 400km~500km의 높이의 저궤도에서 1시간 반 가량 지구를 맴돌며 위치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이고지 측은 "발사되는 인공위성에 진언종 사찰의 가장 기본적인 봉안물인 본존 대일여래와 양계만다라를 탑재해 발사하는 것으로 사찰을 우주에 건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다이고지는 매년 진호국가를 위한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주를 지키는 진호우주를 통해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한다. 고운지 위성에서 보내는 실시간 위치정보와 우주의 환경을 중계 받아 정말로 우주에서 기원하는 마음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고지 측은 실제 이 우주사찰 고운지를 종단에 정식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우주법회' 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에서 접수한 기도의 내용을 Iot를 이용해 우주에 전하는 우주기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첫 우주 법회는 2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법회는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고대 불교무용, 온라인으로 배운다

네팔불교, 불교 무용 온라인 강좌 개시

온라인을 통한 불교강의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대 불교무용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불교 전문 온라인 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는 네팔의 불교 무용 온라인 강좌를 보도했다.

네팔의 국제적인 무용가이자 불교 지도자인 프라즈왈 바즈라차리야(Prajwal Vajracharya)는 2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3개월간 매주 온라인으로 '신성한 네팔의 불교무용' 강좌를 제공한다. 이 강좌는 네팔불교에서 전해지는 전통 음악과 무용,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룬다.

프라즈왈은 35대째 이어오는 네팔밀교가문의 수행자로 대대로 전승해온 만다라, 진언, 수인, 불교무용을 모두 전수 받았다. 네와리 불교라고도 불리는 네팔불교는 현존하는 불교전통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주로 재가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전해져왔다.

네와리 불교의 수행에선 깨달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노래와 춤을 수행에 이용한다. 마음을 닦는 과정으로 이용되는 이 고대의 불교무용은 춤과 수인, 음악을 이용하여 공(空)의 경지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라즈왈 바즈라차리야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이러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불교의례에 대한 인류학적, 학술적 관심은 크지만 네와리 불교의례는 티베트나 일본 밀교의 의례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대로 네와리 불교를 수행해온 집안의 수행자가 구체적인 고대 전승을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로 주목 받고 있다.

프라즈왈은 총 3단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먼저 네와리 불교무용에 대한 기초를 강의한 후, 관세음보살춤, 따라보살춤의 순으로 줌(ZOOM)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숯된 불상이라도, 보존해 모실 터"

천년고찰 콘타이지, 소실 불상 발견

숯상태 임에도 복원 밝혀
9세기때 성보가치 그대로
사찰 재건 프로젝트 발동


탄화된 불상들을 보이는 주지 미츠겐스님과 최초발견자 에자키씨. 사진출처=이세신문

25년전 화재로 본당과 함께 소실되었다고 생각했던 본존불의 잔해가 우연히 발견됐다. 지난 2월 3일 일본의 '이세신문' 은 토우바(鳥羽)시의 천년고찰 콘타이지(金胎寺)에서 발견된 불상들의 소식을 전했다.

콘타이지는 9세기경,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쿠카이(空海)대사가 이세신궁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웠다는 연기가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본존인 11면천수관음상은 쿠카이 대사가 직접 복장과 점안을 했다고 전해지는 불상이며, 콘타이지는 지역 영주들이 대대로 비호하던 원찰로 지역에서는 신앙의 중심지로 유명한 사찰이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화재로 일부 전각과 창고를 제외하고 전소, 쿠카이 대사가 조성한 본존불마저 소실됐다. 이후 화마를 면한 전각을 임시본당으로 삼아 사찰의 재건에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화재 이전 쿠카이 대사가 조성한 본존인 천수관음상에 대한 정보가 미비해 불상의 복원과 더불어 사찰의 재건에 여러 문제가 많았다.

지난해 말, 현 주지인 나가타니 미츠겐 스님(35)과 신도인 에자키 미츠루씨(72)가 화마를 면한 창고를 정리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을 발견했다. 상자 안에서는 거의 숯이 된 상태의 불상들과 불구들이 보관돼 있었다.

발견된 불상들은 본존이었던 11면관음상의 머리와 손, 발 등의 파편들과 말사였던 사찰의 약사여래상 등으로 밝혀졌다. 또 불구와 상량문 등 화재 전의 사찰 규모에 대한 자료까지 약 200여 점의 잔해들로 집계됐다. 특히 약사여래상은 8세기경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토우바시에 현존하는 불상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상들의 잔해가 어떻게 창고에서 잠자고 있었는지는 현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현장을 정리하면서 수습한 것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누가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신도회와 전대 주지 스님 등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숯덩이의 잔해로 발견된 불상들에 대해 사찰과 신도회는 기뻐하면서도 일부는 "숯이 된 채로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는 불상을 모실 순 없다"며 박물관 위탁 등 다른 방향으로 잔해들을 처분하자는 목소리도 일었다. 그러나 사찰측은 "숯덩이라도 그 형태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제대로 보존하여 재건을 향한 희망의 상징으로 모시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 기자

태국, 승려 사진 무단사용 항의

태국불교청, '슈프림'에 서한 발송

지난 18일 방콕 포스트는 태국 국가불교청(NoB)이 미국 패션 브랜드 슈프림(Supreme)에 승려 사진 무단 사용 항의 서한 발송을 보도했다.

'슈프림' 은 21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블레싱 립스톱 셔츠' 에 ' 2015년에 입적한 故 루앙 포 쿤 파리수토(Luang Phor Koon Parisutho) 스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셔츠 뒷면에 스님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태국 전통 부적을 나염했다.

태국국립불교청의 조사관 겸 대변인은 "이 문제를 나몽 송가롬 청장에게 보고했다. 사무국은 '슈프림' 에 스님의 사진을 의류에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한 서한을 보냈다. 이후 디지털경제사회부에도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나콘랏차시마에 있는 왓 반라이 사원에 스님 사진 사용 허가를 요청했는지 확인했으나 해당 브랜드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해 브랜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된 슈프림의 블레싱 립스톤 셔츠.
사진출처=슈프림 웹사이트

루앙 스님의 친척은 "해당 브랜드의 컬렉션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에 대한 인상착의를 들은 결과 스님의 허락 하에 다른 친척이 찍은 것이 틀림없다. 그 사진은 사찰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했다. 왓 반라이 사원이 루앙 스님의 사진이 들어간 티셔츠를 몇 년간 생산하지 않은 까닭은 옷이 낡았을 때 부적절한 장소에 가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김태호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1년 3월 첫째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붓다 가르침, 삶에서 실천될 때 진가 발휘”



초기불교
박광준 지음
민족사 펴냄/2만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붓다 탄생지 룸비니, 붓다 탄생지를 기념하는 마야성당, 산욕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푸스카리니연못, 그리고 아쇼카왕석주가 보인다.

초기불교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초기불교-붓다의 근본 가르침과 네 가지 쟁점〉의 출간은 반가운 일일 것 같다. 이 책은 초기불교를 만들어 낸 사회 · 문화적 바탕과 역사적 배경을 논리적 ·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교리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명료화함으로써 초기불교에 관한 새로운 논의 마당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집필 · 출간되었다.

저자는 초기불교와 관련된 많은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명을 시도하는데, 이는 많은 논란거리를 포함한다. 또한 인간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면서 전에 없이 평화를 느끼게 된 저자의 체험담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런 개인적 체험담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에는 저자가 인도서 찍은 사진 46점의 컬러 사진도 수록되었다. 초기불교의 사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사진들만을 가려 뽑았다. 본문 내용과 연계돼 있어 그때그때 사진과 해설을 참고하면 본문 내용을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초기불교와 관련한 네 가지 쟁점

이 책은 초기불교와 관련해 학계서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핵심 쟁점 네 가지를 정리한 뒤 그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데 내용 절반을 썼다.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쟁점 네 가지는 첫째, 깨달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6년 고행설’이라는 오해는 어떻게 고착화되었는가? 셋째, 붓다는 윤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넷째, 붓다 업론과 바라문 업론은 어떻게 다른가? 등이다. 각각의 쟁점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①: 깨달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붓다의 깨달음이 첫째, 지식과 소양, 둘째, 멈추기의 도전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 조건 위에서, 선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서 깨달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붓다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었다. 완전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깨달음인 것과 동시에, 중생의 고통 문제 해결법을 발견한 것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깨달음의 조건뿐만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수행에 관한 의미 해석과도 관련된다. 저자가 이 문제를 초기불교 쟁점 중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는, 한국불교에 ‘깨달음지상주의’라는 현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깨달음 지상주의로부터의 출가’ 또한 붓다 깨달음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깨달음에는 선정 이전에 필요조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키 위해, 이 문제를 초기불교의 첫 번째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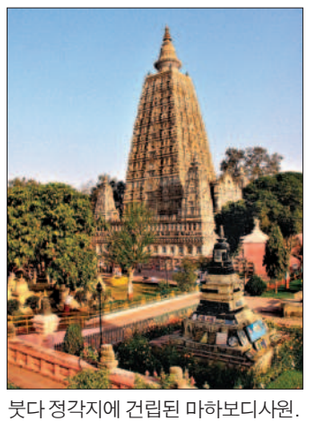
쟁점 ②: ‘6년 고행설’ 오해 어떻게 고착화됐나?

저자가 보기에, 오늘날 동아시아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사실과 멀어진 것이 바로 6년 고행설이다. 그것은 붓다가 출가 후 6년간 고행했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고행을 포기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설명이다. 이 설에 의하면, 고행이란 향락(애욕)과 함께 양극단의 하나이며, 오로지 버려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초기불교에 관한 매우 그릇된 이해임을 강조한다. 붓다의 깨달음은 고행을 포함한 6년간 수행으로 얻어진 것이며, 그 바탕에 철학적 소양과 지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고행설이 마치 붓다법인 양 오전(誤傳)된 것은 초기경전이 고행주의를 부정하는 부파불교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게다가 고행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경전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하려 하지 않고, 한번 정형화된 설이라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연구 풍토 역시 6년 고행설을 오랫동안 고착화시켰다고 본다.

저자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 붓다가 고행을 어떻게 설했는가를 밝히고, 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고행 개념을 자이나교 및 바라문교와 비교 관점에서 고찰한다. 또한 난행(難行), 범행(梵行), 두타행(頭陀行), 사의(四依) 등 고행과 관련된 개념들을 비교 검토한다. 나아가, 붓다가 고행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 직전에 극단적 고행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붓다 정각지에 건립된 마하보디사원.

초기불교 교리 관련 쟁점 명료화
‘깨달음’ ‘6년고행’ ‘윤회’ ‘업론’ 등
유럽, 남방, 일본 등 연구 참조해
저자가 찍은 46점의 사진도 수록

쟁점 ③: 붓다는 윤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붓다는 윤회에 관련된 질문에 무기(無記: 질문에 침묵하는 것)로 일관했다. 그러므로 붓다의 윤회관을 탐구하는 것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해 내는 작업이다.

저자는 붓다가 윤회가 없다는 말을 입에 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했다고 본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 했을 수도 있으나, 붓다는 윤회를 믿는 사람에게도 불법을 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출가자든 재가자든 윤회를 믿는 것은 개인적 자유이지만, 붓다가 윤회를 설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이라고 못박는다. 저자는 초기불교가 아트만을 인정했느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무아설과 비아(非我)설을 초기경전에 기초해 가능한 한 자세히 검토한다.

쟁점 ④: 붓다 · 바라문 업론은 어떻게 다른가?

이 책에서 업론을 초기불교의 쟁점으로 제시한 이유는, 붓다 업론이 인(因: 직접 원인)과 과(果: 결과) 사이에 연(緣)이라는 간접 원인을 설정한다는 점, 그리고 연은 사회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리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이다. 붓다 업론은 ‘인-연-과’ 체계로 되어 있다. 붓다는 인-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그 관계를 규명하려 하지 말라고 설했다. 저자는 붓다 업론은 ‘인-과’가 아닌 ‘이숙인-이숙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은 ‘현재’ 중심의 업론이며 한마디로 자기 책임론임을 강조한다. 붓다 업론이 바라문교 업론과 다른 점, 붓다 업론이 가진 희망적 성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포기와 좌절의 의미를 내포한 ‘체념’이란 말 대신 ‘제념’이라고 쓰길 제안한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는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다른 일들은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곧 제(諦)의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사성제(四聖諦)란 바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진리일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 책은 초기불교를 고대 인도의 역사문화 및 사회사상과 가능한 한 비교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그 독자성을 분명히 밝힌다. 저자는 붓다 사상을 소개할 때, 그것이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가능한 한 자세히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초기경전 중에서 오래된 경전과 후대의 경전으로 다시 구분하거나, 혹은 하나의 초기경전 안에서 최초에 만들어진 부분과 후대에 추가된 부분으로 구분해, 양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초기불교의 특징을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이로써 초기경전의 시기를 구분해야지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초기불교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선행연구는 물론, 일찍부터 초기불교를 연구한 유럽 선행연구, 남방불교 선행연구, 일본 선행연구들을 두루 참조함으로써 논의의 객관성을 높였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 그것 따라 걷는 길

붓다는 인간 붓다이며 역사적 붓다이다. 즉 가공 인물도 초인적 인물도 아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젊은 날에는 고뇌했고, 인간의 몸으로 깨달음에 도전해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를 수많은 고통 속 중생을 구제했고, 인간의 몸으로 입멸했다. 그는 길 위의 사람이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45년 동안 우안거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유행(遊行)했다. 설법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걸어 다가갔다.

저자는 책 속에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붓다에게 묻고,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붓다의 삶을 살펴보고, 또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불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붓다의 가르침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인간 붓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앙 대상으로 숭배하기보다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더 바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붓다가 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반영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 말하며, 불교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독자들도 붓다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선택에 앞서 보다 평화로운 선택이 어느 쪽인가 하고 붓다의 가르침에 비추어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몸에 붙이려고 노력함으로써 각자의 삶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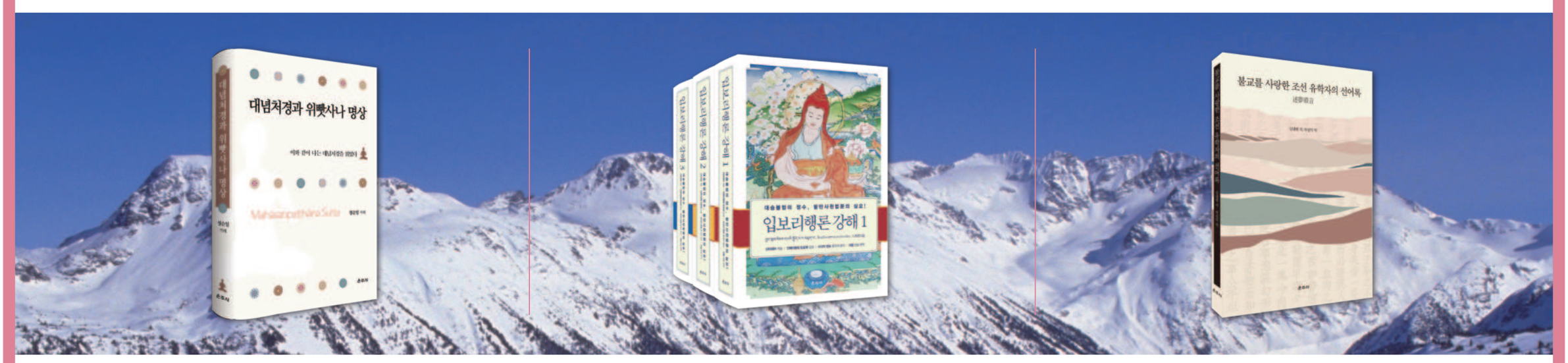
▲저자 **박광준**은?

1958년 통영 출생. 부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정부 초청으로 유학해 일본 북교대학서 영국복지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여대(현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990~2002), 중국 시베이대학(西北大學) 객좌교수, 동국대(서울) 객원교수, 중국 옌벤대학(延?大學) 대학원 객원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 노동경제연구소 방문학자를 역임하고,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북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교사상을 포함한 동서양 복지사상, 동아시아 사회정책(역사) 비교연구가 주된 연구영역이다. 저서로는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중국 · 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등이 있다.

위빳사나 수행의 소의경전!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

티베트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조선의 유학자, 깨달음을 말하다!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불교 명상의 핵심인 사띠(sati)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대념처경』의 빨리어 전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번역하고 해설!
정순일 역해/신국판/양장/376쪽/값 22,000원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진메이펑춰 린포체가 방대한 해설을 달았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술몽쇄언述夢瑣言>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 생사 문제를
조리정연하게 설파한 보석 같은 책!
김대현 저/박성덕 역/국판/208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춤으로 그린 '모든 인간은 우담바라'

김복희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 '춤의 향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3월 5일부터 7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피의 결혼'의 한 장면.

'피의결혼', 신작인 '우담바라' 선보여
남지심소설 〈우담바라〉 춤으로 옮겨
원전속 '인간 존재 소중함' 그린 안무

1971년 창단후 '한국적 현대 무용' 모색
20여회 해외공연 한국현대무용 세계화
50년 동안 '법열의 시' 등 70여 편 발표

불교를 비롯한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를 통해 '한국적인 현대무용'을 모색해온 김복희무용단이 창단 5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한다.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피의 결혼'과 신작 '우담바라'를 선보이는 '춤의 향기'는 3월 5일부터 7일(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복희무용단의 시작은 무용가 김복희 씨가 23살 때인 1971년 명동 국립극장에서 시작됐다. '김복희 김화숙 무용단' 이름으로 '법열의 시'와 '四象의 디자인' 두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올해 72세의 무용가 김복희는 또 한 번 신작을 무대에 올린다. 신작 '우담바라'는 창단 50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의 의미와 더불어 김복희의 안무 철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창작의 연장선이며, 후배 무용가들에게 전하는 동기부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피의 결혼'은 1936년 국민군에 의해 살해된 스페인의 저항작가, 가르시아 로르카의 희곡 '피의 결혼(Bodas de Sangre)'을 안무한 것으로, 1997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7개국의 많은 도시(멕시코는 15개 도시)에서 공연된 김복희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김복희가 훗날 신경림의 시 '우리 시대의 새'를 원전으로 해 안무한 '우리 시대의 새'는 로르카 작품에서 보이는 비극과 어두움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낸 '한국적 현대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 '우담바라'는 남지심 작가의 소설 〈우담바라〉를 원전으로 한 작품이다. 남지심의 소설 〈우담바라〉는 1987년 제1권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제4권이 출간되면서 15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로 영화화되기까지 했다. 김복희의 50년 전 첫 작품이 '법열의 시'였다는 것에서 50년을 기념하는 신작 '우담바라'는 김복희무용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춤 '우담바라'는 원작 소설의 이야기를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골라 그 장면들을 강조해 여러 장의 그림처럼 무대를 꾸민다.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속 등장인물의 깊은 내면의 감정들이 만나고 부딪힘으로써 상징적 이미지들이 펼쳐진다.

김복희는 소설 〈우담바라〉에서 '인간 존재의 소중함'을 보았다. 신작 '우담바라'에서 모든 인간은 3천 년에 한 번 핀다는 천상의 꽃, '우담바라'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춤으로 표현한다. 춤 '우담바라'는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됐다. △첫 장면 '삶의 늪'에서는 인생의 늪에서 살아가는 채련, 동미, 한태서 등을 비롯한 여러 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그린다. △두 번째 장면 '타들어 가는 향(香)'에서는 남의 가문의 피를 지키기 위한 이씨 할머니를 중심으로 융, 당, 봉두 등의 이미지를 그린다. △세 번째 장면 '가슴 속 가슴'에서는 삶의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도 순결한 사랑이 싹트고, 지효를 사랑하는 봉두의 마음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목각의 모양을 통해 사랑과 이해의 화합을 그린다. △네 번째 장면 '울림'에서는 화합과 사랑, 평화 그리고 윤회의 의미가 담긴 군무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출연 무용수들의 '구성'이다. 62세의 손관중(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50대의 서은정(대전대 교수), 이정연(이정연댄스프로젝트 대표), 김남식(댄스투룹-다예술감독), 40대의 박은성(한양대 겸임교수), 문지애(국립국악고 강사), 박종현(추계예술대학교수), 이지희(충북예고 강사), 30대의 제자들 김은정, 최재혁, 권민찬 등 춤 잘 추기로 이름난 안무가와 무용수들, 그리고 2018년 2019년 2년에 걸친 김복희의 〈피의 결혼〉 스페인 공연에 출연했던, 20대의 제자 권재헌 윤혁중 등 다양한 연령층의 무용수들이 함께 출연한다.

김복희무용단은 한국현대무용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용단으로, 많은 해외공연을 해왔다. 1990년 이후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20여 회 해외공연을 통해 한국적인 현대무용을 해외에 소개했다. 또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현대무용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1971년 제1회 공연을 명동예술극장에서 가진 후 지속적으로 한국성과 현대성을 추구하면서 예술과 대중화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법열의 시', '요석, 신라의 외출', '아홉 개의 의문', '피의 결혼' 등 많은 작품을 공연했으며 매년 신작을 발표하고 있다. (02)2263-4680



김복희 씨〈사진〉는 이화여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교수와 동대학원 예술학부 학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1971년 첫 개인발표회 후 현대무용이라는 서양 메소드에 '한국성'을 접목한 작품 70여 편을 무대에 올렸다.

'법열의 시'를 시작으로 '흙으로 빚은 사리의 나들이', '향', '요석, 신라의 외출', 에밀레종을 소재로 한 '뒤로 돌아 이 소리를', 선을 주제로 한 '아홉 개의 의문, 그리고', 이광수의 소설 꿈을 원전으로 한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 '바라춤' 등 불교적 소재와 이미지를 한국적 현대 작품으로 지속해서 구현해 왔으며, 이청준의 소설 〈눈길〉, 김영태의 시 '덫', 서정주의 시 '진달래꽃', 신경림의 시 '우리 시대의 새' 등 문학작품을 원전으로 한 안무를 계속해왔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문인 가르시아 로르카의 3대 비극 〈피의 결혼〉,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예르마〉는 각각 김복희의 '피의 결혼', '슬픈 바람이 머문 집', 그리고 '석녀 예르마'의 원전이 되었다. 특히 〈피의 결혼〉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라틴 문화권에서 격찬을 받았던 한국적 현대무용이다.

1979년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4년 옥조근정훈장에 이르기까지 다수 수상했으며, 〈춤으로 삶의 집을 짓다〉, 〈춤을 타고 세계로-무용수필집(공저)〉, 〈현대무용테크닉〉, 〈무용 창작론(공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대가가 남긴
'석굴암 사진' 감상하세요

故 한석홍 작가 기증사진 무료 다운로드

평생을 문화재 사진을 촬영해 온 1세대 문화재 사진작가 故 한석홍(1940~2015)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국보 제24호) 사진을 전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故 한석홍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 69점을 국민 누구나 활용 할 수 있게 공개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사진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2월 17일부터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게 됐다.

1909년 재발견 직후의 석굴암 사진은 대부분 일본 정부와 학자가 연구 · 조사를 위해 촬영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가가 안정되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로 석굴암을 보수하며 사진을 남기기 시작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당시 정부는 석굴암을 수리했고, 정명호(1934~), 故 김준식(1923~1992), 故 정영호(1934~2017) 교수에게 촬영을 맡겼다.

1980년대 이후 문화재 사진은 재현의 장치로서 전문적인 영역이 구축된다. 문화재 전문 사진촬영을 이끈 대표주자가 바로 故 한석홍 씨다. 앞선 시기의 문화재 사진 촬영이 과정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면, 그의 사진은 문화재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재현의 장치이자 예술작품이다. 우리가 흔히 접했던 대부분의 석굴암 사진은 故 한석홍 작가의 작품이다.

故 한석홍 작가가 석굴암을 접한 건 1981년으로 일본에서 출간한 〈세계의 미술〉 제2권 한국 · 동남아시아 편의 석굴암 사진을 담당하면서부터다. 이후 1986년, 2000년 미술사학자 강우방의 저서의 사진을 의뢰받아 다시 석굴암 촬영을 진행했다. 세 차례의 촬영을 통해 그는 석굴암의 면면을 필름 1172장에 담아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故 한석홍 씨의 석굴암 사진, 필름 등 1172점을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이 자료들은 1981년, 1986년, 2000년 세 차례 걸쳐 촬영된 석굴암 사진으로, 해외 유명 전시와 각종 도록에 수록된 사진 등도 포함돼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증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에 〈석굴암 그 사진〉 사진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사진은 사진집에 수록된 것들 중 대표적인 사진 69점을 고화질로 디지털화한 것이다.

원본파일은 공공누리 1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든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 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신입생 모집기간
대광사 종무소 접수 및 전화신청 후 입학원서 제출

■ 학 제 : 3년 6학기 과정 / 주야, 화·수·목
■ 교과배정 비율 : 이론70%, 실기30%
- 불교교리 30%, - 심리상담 40%, - 명상 30%
■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붓다의 깨달음을 천태법화의 수행관으로 편성한 공空, 가假, 중中 세단계를 점차로 닦아 삼제원융(三諦圓融)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한다.
■ 수 강 료 : 1학기당 17만원 / 기업 031 715 7000 / 사단법인행복명상
■ 수료후특전 : 명상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교 통 : 분당선, 신분당선 / 정자역, 미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번, 2번,19번 / 오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 19번

과 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 격	전형요강
空 기본 (1년)	【화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학력,종교 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 면 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2학기	• 명상(이론, 실기병행)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성격심리학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학기	• 자비명상		
요 가	【화요일】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 수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30 Tel. 031)715-3000, Fax 031)715-3409 홈페이지 http:// www.daegwangsa.org

“한국형 俗講 ‘땅설법’ 무형문화재 지정을”

김형근 교수, 〈정토학연구〉기고 논문서 주장

땅설법 무형유산의 가치 조명
부처님 일대기 등의 구비경전
노래 · 연극을 통해 쉽게 전달
의례 · 공연 포함된 복합 유산
단절 위기…문화재 지정 돼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와 가르침, 그리고 다양한 불교설화들은 어떻게 전승돼 왔을까. 대부분 글자를 통해 전해져왔지만, 글을 몰랐던 일반 백성들은 이를 접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쉽게 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중국서 시작된 강창(講唱)이다. 이는 속강(俗講)이라고 했는데, 운문과 산문을 섞어 불교 설화를 전달하는 형식을 설법에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전하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불교강창과 속강이 존재했다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의례나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가 ‘땅설법’을 전승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계의 관심은 촉발됐다. 이후 2019년 한국불교민속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열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됐다.

김형근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교수가 〈정토학연구〉 34집에 기고한 연구논문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구비경전과 무형유산적 가치’는 안정사 땅설법 구비경전의 내용을 분석하고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안정사 땅설법의 전승은 이북 지역서 활동했던 강통(講統, 땅설법 법맥 대표) 무명 스님(1910~1988)으로부터 이뤄졌다. 현재 전승자인 안정사 주지 무여 스님은 10살 때인 1976년부터 1988년까지 무명 스님으로부터 땅설법을 사사했으며,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패와 전법게를 받았다.

땅설법의 구비경전(레퍼토리)은 본전 △석가모니 일대기 △선재동자 구법기 △목련존자 일대기 △성주신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등 5종과 별전 △만석중증도기 △안락국태자경 △태자수대나경 △심청효행록 △삼한세존일대기 △위제희부인만원연기 등 6종이 있다. 본전 · 별전 모두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백중, 수륙재 등서 설행됐으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불교민속학회가 2019년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삼천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과 신도들이 땅설법을 시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땅설법을 “불교 전래 지역에 보편적으로 형성돼 왔던 속강, 강창, 전변(轉變)의 한 국형”이자 “다양한 범주에 걸친 복합 불교무형문화유산”이라고 정의한다. 방식이 어찌됐던 땅설법은 불교의식의 한 형태이면서도 강(講) · 창(唱) · 연(演)을 통해 구비경전을 연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땅설법은 ‘변상도’를 필수도구로 사용해 공예 · 미술 관련 전통기술과도 연관이 있으며, 땅설법 연행을 위해 안정사 신도들이 직접 관련 도구를 만들며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안정사 땅설법의 전승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땅설법을 연행하는 속강승(俗講僧)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김 교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꼽았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신입 전승자들의 유입이 가능해지고, 지역 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땅설법은 한국을 넘어 불교 문화권의 보편적 문화이자 중국, 일본에는 남아있지 않은 유일한 예”라며 “중국의 기록을 통해 속강이 단순히 판소리처럼 운문과 산문으로만 구성됐을 것으로 상상했다. 하지만 안정사 땅설법은 노래 연극 등을 통해 매우 입체적으로 연행되고 있다”고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삼척시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에 선정됐다. 당연히 안정사 땅설법도 해당 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불안한 전승 환경의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보호조치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찰 소장 경판 · 괘불 · 경장 ‘보물’ 지정

문화재청 2월18일 지정공고
쌍계사 목판 3건 등 비롯해
남장사 괘불 · 대둔사 경장
“보존과 활용 적극 나설 것”


① 보물 제2111호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② 보물 제2117호 ‘구미 대둔사 경장’
③ 보물 제2116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사찰 소장 목판을 비롯해 전적, 괘불, 경장들이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하동 쌍계사 목판 3건을 비롯해 남장사 괘불도, 대둔사 경장 등 1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또한 조선왕실 문서인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를 국보로 지정했다.

보물 제2111호로 지정된 ‘선원제전집도서 목판’과 보물 제2112호 ‘원돈성불론 · 간화결의론 합각 목판’, 보물 제211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모두 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이다. 이는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성과로, 지난 2016년 경남 지역 사찰 소장 목판 중 제작시기 · 보존상태 · 희소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을 보물로 지정한 것이다.

지정 대상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지리산 신흥사 판본(1579)과 순천 송광사 판본을 저본(底本)으로 해 1603년(선조 36) 조성된 목판으로, 총 22판 완질이다.

판각에는 당시 지리산과 조계산 일대에서 큰 세력을 형성한 대선사(大禪師) 선수(1543~1615)를 비롯해 약 115명 내외의 승려가 참여했다.

문화재청은 “쌍계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된 것으로, 전래되는 동종 목판 중 시기가 가장 이르고 역사적 · 학술적 · 인쇄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원돈성불론 · 간화결의론 합각 목판’은 고려시대 지눌(1158~1210) 스님이 지은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을 1604년(선조 37) 능인암에서 판각해 쌍계사로 옮긴 것으로 총 11판의 완질이다. 병자호란 이전 판각됐으며, 관련 경전으로는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어 보물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1455년(세조 1)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해 1611년(광해군 3) 여름 지리산 능인암에서 판각돼 쌍계사로 옮겨졌으며, 총 335판의 완질이 전래되고 있다.

사찰 소장 괘불도와 목공예품인 경장도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2116호로 지정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은 높이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 1폭과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낭(腹藏囊), 이를 보관한 함을 포함한 복장유물로 구성됐다. 이 같이 불화와 함께 복장유물을 놓은 복장낭이 온전하게 일괄로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괘불도는 1776년(정조 1) 조선 후기 대표적 수화승 유성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여 명이 참여해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또한, 17~18세기 제작 괘불이 여러 번 보수를 거치는 동안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것과 달리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가치로 꼽을 수 있다.

보물 제2117호 ‘구미 대둔사 경장’은 1630년(인조 8)에 조성된 경장(經欌, 불교 경전을 보관한 장)으로 조선 시대 불교 목공예품 중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파악된 매우 희소한 사례이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불교 목공예품으로 경장을 비롯해 목어(木魚), 불연(의식용 가마), 촛대, 업경대(業鏡臺, 생전에 지은 죄를 비추는 거울)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됐으나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면서 “‘구미 대둔사 경장’은 왼쪽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수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본격화’

2025년까지 221건 구축 목표
봉정사 극락전 등 올해 시행

문화재수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올해부터 문화재수리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하고 분산 관리되던 문화재수리이력을 하나의 3차원 유형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HBIM(Historic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구축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HBIM은 건조물문화재의 3차원 형상정보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수리이력 등에 관한 비형상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정보모델로 문화재 분야에서 적용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2025년까지 국보와 보물 건조물문화재 중 221건의 HBIM을 구축할 예정이다.

HBIM이 구축되면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렵던 건조물문화재 주요 구조부의 접합방법, 내부 구성부재의 형상 등을 3차원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부재별 재료정보, 수리이력 등의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등 국보 · 보물 목조 건조물문화재 27건에 대한 HBIM 구축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수강생 모집 안내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에게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찰에서 통학을 하면서 주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1년 3월 3일(수)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통학 가능.
▣ 과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스님, 강사 각안스님, 외래 초빙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 농협 351-0422-9291-33 선암사

▣ 특전
▶ 통학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등록서류 : 입학원서 외(입학원서에 명시되어 있음)
▣ 등록마감 : 2021년 2월 28일

※ 입학원서는 선암사 홈페이지 (www.seonamsa.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특별강원장 시각 합장
(우)57909 전남 순천시 선암사길 450 / 문의전화 061) 754~5247, 5953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

▶ **8회 예고**
별궁에 든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의 아이를 잉태한다. 다르마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빵갈로바뜨사를 찾아간다. 빵갈로바뜨사는 빈두사라왕이 북서쪽으로 떠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다르마는 왕의 권유대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



빈두사라왕의 왕비가 되다

다르마는 암바니가마의 호의와 견제라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몇 달을 보냈다. 어느 새 가위질이 손에 익어 왕족과 어린 왕자들의 이발을 도맡아 할 때도 많았다. 암바니가마가 빈두사라왕의 부름에 궁으로 갈 때는 다르마가 왕족과 어린 왕자들의 이발을 책임지곤 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익숙해지자 얼굴 형태에 따라 멋을 부려보기도 했다.

암바니가마가 또 다시 궁으로 불려들어 간 날이었다. 락슈미띳사가 희소식을 물고 와서 이발소 문을 연 채 말했다.

"왕비님, 밖으로 좀 나와 보셔요."

"왜 그래?"

수드라 여인들이 귀를 쫑긋거렸지만 락슈미띳사가 다르마를 이발소 밖으로 불러냈다.

"방금 빵갈로바뜨사 구루를 만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수시마 왕자님이 이발을 한대요. 저더러 이발소 안을 청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구루 말씀대로 하자. 첫째왕비님의 아드님이 오신다고 하니 나도 설레는구나."

"수시마 왕자님은 이발을 싫어해서 머리만 감고 가곤 했죠."

"어쨌든 준비하고 있자구나. 나는 이발 도구를 청소해 놓아야겠어."

이발소 안으로 들어온 다르마는 가위와 면도를 전단향나무 분말을 뿌린 물에 씻었다. 락슈미띳사는 수건으로 의자를 닦았다. 이발소 안은 전단향나무 향기가 진동했다. 수드라 여인들은 세수하고 머리 감는 물을 데우기 시작했다. 과연, 나무통에 든 물에서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무렵에 빵갈로바뜨사와 수시마 왕자가 나타났다. 수시마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듯 어른 손바닥만 한 나무판자를 들고 있었다. 다르마가 곁눈으로 보니 나무판자에는 산스끄리뜨어 글자들이 빼꼭히 쓰여 있었다. 다르마가 빵갈로바뜨사에게 물었다.

"왕자님께서 이발하러 오신거죠?"

"이발사여, 오늘은 이발도 할 거예요. 물론 머리를 감을 거고요."

어린 수시마가 또박또박 말했다. 말투로 보아 총명하고 신중했다. 다른 때는 머리만 감고 갔는데 오늘은 이발까지 한다는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다르마는 수시마를 의자로 안내했다. 수시마가 의자에 앉자마자 빵갈로바뜨사는 다른 왕자를 만나야 한다며 이발소를 나갔다. 다르마가 물었다.

"어떻게 머리를 만질까요? 왕자님."

"알아서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산스끄리뜨어를 외울 수 있나요?"

"왕자님, 그건 안 된답니다. 옷에 머리카락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별 수 없고요."

수시마는 다르마의 말에 고분고분했다. 산스끄리뜨어가 쓰인 나무판자를 다르마에게 맡겼다. 다르마는 푸른 비단 천으로 수시마를 감쌌다. 수시마의 작은 얼굴만 청동거울에 비쳤다. 그런데도 수시마의 눈길이 자꾸 나무판자로 가는 것 같아 다르마는 락슈미띳사를 불렀다.

"락슈미띳사여, 왕자님을 위해 나무판자 좀 들고 있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 수시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 이발사여. 나의 엄마 같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발사일 뿐입니다."

락슈미띳사가 대담하게 거들었다.

"왕자님, 이분은 왕비님 같이 기품이 있는 분이랍니다."

"맞아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엄마에게 얘기해서 대왕님을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저는 실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수시마는 자신의 머리를 청동거울에 이리저리 비춰보면서 말했다.

"내 얼굴이 훤해졌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궁에서 따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발을 마친 수시마가 갑자기 나무판자를 다르마에게 내밀었다.

"자, 선물이니 받아요."

"왕자님, 나무판자에 적힌 산스끄리뜨어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발하면서 마저 다 외웠으니 이젠 필요 없어요."

"아, 총명하시군요."

"빨리어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 같이 밋밋한데 산스끄리뜨어는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다웁죠."

락슈미띳사는 수시마 왕자가 다르마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다르마가 엄마처럼 자애롭게 수시마 왕자의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이발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발이 끝나자 빵갈로바뜨사는 정확하게 이발소로 수시마를 데리러 왔다. 빵갈로바뜨사도 수시마의 머리를 보더니 만족했다.

"이제, 더 배울 것이 없겠소."

"구루시여, 왕자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을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마는 산스끄리뜨어가 적힌 나무판자를 빵갈로바뜨사에게 내밀었다. 빵갈로바뜨사는 나무판자를 받아들고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다르마여, 이건 왕자님들이 돌려가며 보고 익히는 나무판자지요. 그러니 선물이 될 수 없는 물건이오."

빵갈로바뜨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왕자님은 마음씨는 좋으나 공사가 분명하지 못해 탈이야.'

다르마는 빵갈로바뜨사의 입술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마음은 착하지만 무언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빵갈로바뜨사의 불만이었다. 그러나 다르마가 보기에는 수시마의 선함이 더 성장한 후에라도 그런 허물까지 덮고도 남을 것만 같았다.

어린 수시마 왕자가 궁중 이발소를 다녀간 지 한 달 닷새 만이었다. 이발사 암바니가마가 외출하고 없을 때였다. 수시마가 첫째왕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빈두사라왕의 전령이 이발소로 왔다. 전령은 빈두사라왕께서 다르마를 부른다는 명을 전하고 기다렸다. 다르마는 당황했지만 락슈미띳사가 도와주었다. 락슈미띳사가 말했다.

"암바니가마 언니가 궁에 들어갈 때는 전단향 물에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대왕님을 뵈러 가는 길이니 예의를 갖추어야겠지."

"이발 도구는 제가 챙길게요."

"고마워. 지금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어.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아."

"제가 따라가 드릴까요?"

"제발 그래줘. 몸이 떨려서 실수할지도 몰라."

"제가 락슈미 신에게 기도할게요."

수드라 여인들이 수건에 물을 묻혀 내실에 있는 다르마의 몸을 닦아주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까시국에서 생산한 붉은 비단 사리를 내놓았다. 아마도 왕족이 분실한 옷이 틀림없었다. 수드라는 비단옷을 입을 수 없었다. 바이샤 이하는 흰색 무명옷만 입어야 했다. 다르마는 브라흐민이기 때문에 붉은 사리를 입을 수 있었다.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이 보낸 전령을 따라갔다. 락슈미띳사도 이발 도구가 든 바구니를 들고 다르마를 뒤따랐다. 궁궐은 온통 대리석 건물이었다. 귀족들이 사는 벽돌집보다 웅장하고 천정이 높았다. 햇살이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스며들어 궁궐 안은 생각보다 밝았다.

그러나 왕과 귀족의 위엄이 써늘한 냉기처럼 감돌아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를 위축시켰다. 궁궐 안으로 들어갈수록 대리석 벽면에 새겨진 벽화와 조각품들이 많아졌다. 어떤 벽화는 벽면을 한가득 채우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의 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이 마가다국을 정복한 뒤 마우리아왕조를 건국하는 조각품도 눈에 띄었다.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는 별실로 들어갔다. 왕이 이발하는 장소인 듯 의자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고 별다른 장식은 없었다. 높다란 천정 바로 밑에 뚫린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와 빛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빛기둥은 의자에서 멈추었는데, 의자는 황금색으로 눈부셨다. 이윽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다르마는 직감적으로 빈두사라왕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문 옆에 섰다. 왕의 전령이 큰 문을 열자 빈두사라왕이 긴 옷자락을 끌며 들어왔다.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는 빈두사라왕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렸다. 잠시 후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그대가 다르마인가?"

"예, 짬빠성에서 온 다르마이옵니다."

"고개를 들라."

순간, 다르마는 빈두사라왕의 목소리가 아버지와 닮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안도감이 들었다.

"대왕님, 이발하는 솜씨가 뛰어나지 않사오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허허허. 겸손하구나."

락슈미띳사는 빈두사라왕의 위엄에 압도당한 나머지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런 탓에 이발 도구가 든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다르마는 바구니에서 비단 천을 꺼내 빈두사라왕의 가슴에 둘렀다. 왕의 몸에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은 몹시 피곤한지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토막잠을 잤다.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았다. 락슈미띳사는 빈두사라왕의 잠든 자세가 흔들릴 때마다 안절부절못했지만 다르마는 차분하게 이발을 했다. 이발사 암바니가마로부터 혹독하게 이발 기술을 배운 덕분이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가위질은 빠르고 정확했다. 면도 역시 쓱쓱 빗나가는 실수가 없었다.

눈을 뜬 빈두사라왕이 청동 손거울을 들고 보더니 매우 만족했다. 암바니가마가 고지식하게 항상 똑같이 이발하는 데 비해 다르마는 자신을 훨씬 젊어 보이게 머리를 손질한 듯했다. 빈두사라왕이 큰소리로 말했다.

"내가 10년 정도 젊어 보이는구나."

"대왕님, 원래 젊으시옵니다."

"허허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르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직 대왕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옵니다."

빈두사라왕이 의아해하며 다르마에게 물었다.

"나는 끄샤뜨리아 왕이요 너는 천한 이발사인데 어찌 감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대왕님, 저는 본래 이발사가 아니라 붉은 사리를 입고 있는 브라흐민의 딸이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를 대왕님의 아내로 보내주셨습니다."

그제야 빈두사라왕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오, 빵갈로바뜨사 수행자한테서 너의 얘기를 들은 것도 같다. 내가 허락을 했지.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실제로 빈두사라왕은 다르마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언젠가 빵갈로바뜨사에게 짬빠성에 사는 여인을 왕비로 삼아달라는 청을 받고 허락했지만 15명의 왕비와 후궁들 때문에 곧 망각해버렸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이 다시 물었다.

"누가 너에게 이발 기술을 배우라고 했느냐?"

"막내왕비님께서 저를 이발소로 보냈사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너는 더 이상 이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는 별궁에서 살 것이니라."

"대왕님, 저의 소망은 이루어졌으나 또 하나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인가? 말해 보아라."

다르마는 락슈미띳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이발소 소녀를 별궁에 두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거야 시중 들 사람이니 네 마음대로 하거라."

빈두사라왕은 곧 손을 휘휘 저으며 별실을 나갔다. 별실의 큰 문이 닫히는 순간 다르마와 락슈미띳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러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안은 채 나직이 흐느꼈다. 〈계속〉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무료특강 (2년코스)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수업,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 다루는 법 (목탁·요령·북·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일죽면 고은리)
교육문의 사무총장 원기스님 010-5306-0856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수업 : 오전 9시에 시작		
오전 9시	천도재 / 강의실	법원스님
오전11시	작법무 시간 / 강의실	법원스님
점심시간		
오후 1시	작법무 보충수업 / 강의실	
오후 1시	교양과목 (태평소) / 별채	시우스님
오후 2시	귀장술 / 강의실	원기스님
오후 3시	북타법 / 강의실	원기스님

※ 수업은 시간의 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행사 문의 ★
윤달 예수재, 수륙재, 방생, 점안식,
1000일기도 회향법회, 고사, 산신재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259
[부회장] 일구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직인 변경 공고

종정 새 직인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직인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존 종정 직인은 2021년 2월 5일부로 기존 종정 직인을 폐기합니다.
차후 제20대 총무원장 임명과 종정 교시에도 해당 종정 직인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종정 직인 위·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니, 본 종 원로원, 총무원,
중앙종회, 각 교구종무원의 스님은 변경 등록한 종정 직인을 확인 양지 바랍니다.

불기 2565(2021)년 2월 5일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도선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④ 구산선문의 주변 상황



▶ 한줄 요약
구산선문 가운데 마지막에 형성되었던 수미산문을 제외한 8개 산문은 중국의 선종오가와는 별개로 한국적 토양 속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

구산선문, 한국적 토양 속 구축·전개

8세기 후반기에 크게 발전했던 중국 선종의 상황은 바다를 건너서 신라에까지도 전해졌다. 이에 신라불교에서는 당시까지 발전했던 교학불교 이외에도 새로운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입당하여 선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였다. 중국 선종의 홍주종은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 및 그 문하에서 전개된 선풍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서 가령 서당 지장(西堂 智藏, 735~814)은 마조 문하에서는 비교적 연령이 앞선 인물이었는데, 〈송고승전〉에 의하면 본래 율과 화엄의 학승이었다. 가령 무염(無染)은 부석사에서 석징대덕에게 화엄을 공부하였고, 무염의 제자 여엄(麗嚴)도 마찬가지였으며, 도헌(道憲)도 범체대덕에게서 화엄을 공부하였고, 도윤(道允)의 제자 절중(折中)도 부석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으며, 혜철(慧哲)도 부석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고, 개청(開淸)도 화엄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으며, 행적(行寂)도 해인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다.

이런 점은 신라에서 이미 화엄학을 공부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던 입당 구법승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서당한테 참문하게 된 기연을 갖기에 적절한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마조의 문하에는 교종으로부터 선종에 들어온 인물이 많았다. 서산량(西山亮)은 그 전형으로서 교학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소식을 단절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선을 공부하기 위하여 입당했던 선자들로 하여금 우선 강서지방에서 전개된 홍주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한편 8세기 후반기 무렵부터 한국에 선법이 전래된 지 백여 년이 되었을 때, 한국선의 역사는 지속하여 입당한 구법승이 귀국하면서 한국불교에 새로운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8세기 후반기의 법랑과 신행을 이어서 9세기 전반기에는 중국선의 남종선법을 전해오는 선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써 당시에 중국의 선종에서 새롭게 정통으로 자리매김하여 발전하고 있었던 남종선법은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전승되었다.

8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입당 선승들 가운데서 설악 도의를 비롯하여 실상사의 홍척과 쌍계사의 진감국사 혜소 등이 소위 홍주종의 선풍을 전승하게 됨으로써 한국선이 역사에서 처음으로 문정(門庭)을 개창할 최소한도의 여건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들을 이어서 9세기 중반에는 그 동안 입당했던 선자들이 다수 귀국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당 말기 불교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당의 무종이 치세하던 회창 2년 842년부터 5년 845년까지 발생했던 회창의 법난(法難)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학승들은 부득이하게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귀국한 선자들은 이미 신라에서 백여 년 동안 축적된 선법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산문을 개창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구산문 혹은 구산선문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 전후까지 확대해보면 구산선문 이외에도 다양한 산문이 형성되고 소멸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구산선문이 시작된 실상산문 실상사.

우선 구산선문의 형성이라는 설에 대해서도 신라 말기, 고려 초기, 의천 이후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신라 말기에 성립되었다는 설이다. 구산선문과 조계종에 관하여 이능화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되어 있는 수미산문 · 성주산문 · 가지산문 및 이미 알려져 있는 굴산산문 · 쌍봉산문 · 희양산문 등 6산문을 제시하였고, 6산문 외에 알 수가 없는 3산문에 대해서는 최치원이 쓴 '지증국사비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13산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허흥식은 이능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영수는 처음으로 구산선문에 대한 구체적인 산명과 조사 및 계승자를 정리하였지만 그에 대한 전거를 생략하였고, 나아가서 의천 이후에 나말에 성립되었던 구산선문이 통합되어 조계종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둘째는 고려 초기의 성립설이다. 김영태는 구산선문이 나말에 성립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수미산문의 경우에 932년(고려태조 15년) 이엄(870~936)에 의하여 개창되었고, 희양산문의 경우에 도헌(824~882)에 의해 개창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935년(태조18년) 긍양(878~956)에 의하여 개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산선문은 고려 초기에 성립되었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산선문의 개창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는 의천 이후 성립설이다. 허흥식은 그동안 학계의 통설이었던 구산선문의 산명과 조사명이 갖추어져 수록된 최초의 저술로 〈선문조사예참의문〉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나말여초의 성립설을 부정하여 나말여초의 선종계를 망라한 체계로는 볼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예참의문〉을 분석하여 구산선문과 그 조사의 설정은 의천 이전의 선종을 포괄할 수가 없는 까닭에 의천 이후를 구산선문의 성립기준으로 삼았다. 허흥식은 전거를 제시하였지만 고려 초기의 산문과 후기의 산문의 전승관계를 통시대적으로 조계종이라는 틀에 한정하였다.

9세기 초 남종 선법 전래 늘어나
구산선문 형성시기 여러 설 존재
'선종오가와 동시대의 형성' 주목
중국禪 전승했지만 '독립적'으로

보다 넓은 의미의 산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선법의 초기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구산선문 이외에도 다양한 산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는 14산문의 개념이 있다. 지증대사 도헌의 비문에서는 14산문의 개념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 곧 신라로 귀국한 선자에 대하여 설악의 도의(道義), 남악의 홍척(洪陟), 그리고 이후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태안사의 혜철(慧哲), 혜목산의 현욱(玄昱), 지력산의 ▫문(▫聞), 쌍계사의 혜소(慧昭), 신흥사의 충언(忠彦), 용암사의 각체(覺體), 진구사의 각휴(覺休), 쌍봉산의 혜운(慧雲), 굴산사의 범일(梵日), 성주사의 무염(無染), 보리사의 ▫종(▫宗), 희양산의 도헌(道憲) 등이다.

둘째는 6산문이 개념이 있다. 광종 시대 이후 승과에 등용되었고, 선종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종계를 주도하였던 원종대사 찬유(璨幽)의 비문에 보이는 고달원(高達院), 희양원(晞陽院), 도봉원(道峯院) 등 3원, 그리고 승과에 등용되었지만 개산된 산문이 확인되지 않은 개천산 정토사 홍법국사, 승과에 등용되었던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의 본산인 우두산 개선사, 승과에 등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암산 여흥선원(麗興禪院) 등이다.

셋째는 9산문의 개념이다. 〈고려사〉 세가 권10, 선종 원년 정월 조에 9산문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곧 보제사의 승려인 정과 쌍(貞 · 雙) 등이 구산문에서 수학하고 있는 승도들에 대하여 진사와 같은 경우처럼 3년에 1회씩 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보인다.

넷째는 3산문의 개념이다. 오관산 서운사의 요오선사 순지(順之), 원주 영봉산 흥법사 진공대사 충담(忠湛), 〈삼국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룡왕사의 보요선사(普耀禪師)의 산문 등이다.

그러나 이들 산문은 개창되고 존속했던 시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구산선문 이외에도 여러 산문이 명멸했던 흔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까닭에 초기 한국선종사의 이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구산선문이 개창된 시대에 대해서는 선종오가와 동시대에 형성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중국선과 독립된 한국선법의 독자적인 면모가 담겨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소위 조사선이 정착되고 꽃을 피웠던 시대는 선종오가의 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소위 위앙종 · 임제종 · 조동종 · 운문종 · 법안종이 성립된 시기를 보면 위앙종을 필두로 하여 9세기 중엽부터 법안종을 끝으로 1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백여 년의 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해당하는 신라 말기 및 고려 초기에 형성된 구산선문의 시대를 보면 실상선문을 필두로 하여 9세기 중엽부터 수미산문을 끝으로 10세기 중엽에 걸쳐 형성되었다. 이 점은 구산선문 가운데 마지막에 형성되었던 수미산문을 제외한 8개의 산문이 중국의 선종오가와는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수미산문을 제외한 실상산문 · 가지산문 · 사굴산문 · 동리산문 · 성주산문 · 희양산문 · 봉림산문 · 사자산문 등 이상 8개 산문의 조사들은 선종오가의 조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법맥을 계승하지 않고 각각 서당 지장(西堂 智藏) · 서당 지장 및 백장 회해(百丈 懷海) · 염관 제안(鹽官 齊安) · 서당 지장 · 여만(如滿) · 혜은(慧恩) 및 창주 신감(滄州 神鑑) · 장경 회휘(章敬 懷暉) · 남전 보원(南泉 普願)으로부터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수미산문은 중국의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 제2세에 해당하는 운거 도응(雲居 道膺)의 법맥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선의 영향을 전승하였으면서도 8개의 산문이 중국의 선종오가의 법맥으로부터 직접적인 전승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은 구산선문에서 전개된 선사상의 면모가 한국적인 토양 속에서 구축되었고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성주산문 무염국사의 말로 전해지고 있는 무설토론(無舌土論)에 보이는 선과 교의 차별, 사굴산문 범일국사의 말로 전해지고 있는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에 보이는 조사선과 여래선의 차이 등을 언급해볼 수가 있다.

우선 전자에 해당하는 선과 교의 차별에 대해서는 신라에 선법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악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교학이 발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입된 시기에 필요 불가결했던 것이지만, 선법의 입장에서는 어느 모로든지 교학보다 선법이 우월하다는 주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고려 후반기에 출현한 〈선문보장록〉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후자에 해당하는 조사선과 여래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법으로 사람들을 교화하려고 했던 측면에서 단도직입의 방식인가 혹은 자상하게 이끌어주는 방식인가에 따른 분별이었다.

한편 이와 같이 구산선문을 개창했던 조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록을 남겨놓지도 않았고, 그러한 흔적도 보이지 않은 까닭에 그 선사상의 면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종사에서 찬술된 몇몇 전등사서(傳燈史書)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구산선문의 조사들에 대한 사상의 특색을 엿볼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3월 2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❹ 아미타여래도 납의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선림사에 소장된 〈아미타여래도〉는 고려불화 중에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아미타부처의 납의 문양의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다. 그 문양에 바로 극락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아미타부처님, 空의 옷을 입다

Interbeing의 세상

세상에서 가장 긴 영어 단어로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라는 용어가 있다. 그 뜻은 '뜬구름처럼 여기기'. 발음을 표기하자면 '플럭시-너시-니힐리필리-피케이션' 이다. 이렇게 긴 단어가 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 뜻 또한 놀랍다. 특히, 재물을 뜬 구름처럼 여긴다는 것이지만, 나아가 세상의 것 무엇이든 무상(無常)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는 틱낫한 스님은 그의 설법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하늘의 구름이 흩어지는 것'에 자주 비유하셨다.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의 죽음은 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라짐은 생겨남과 함께 존재하기에."

구름으로 하늘을 떠다니는 것도 아름답지만 비가 되어 땅에 내리는 것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난다.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로, 수증기로, 다시 구름으로, 다시 물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모두 뜬구름과 같다. 모두 무상하다.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 속성을 못 이기고 사라져버린다. 무상하다는 스스로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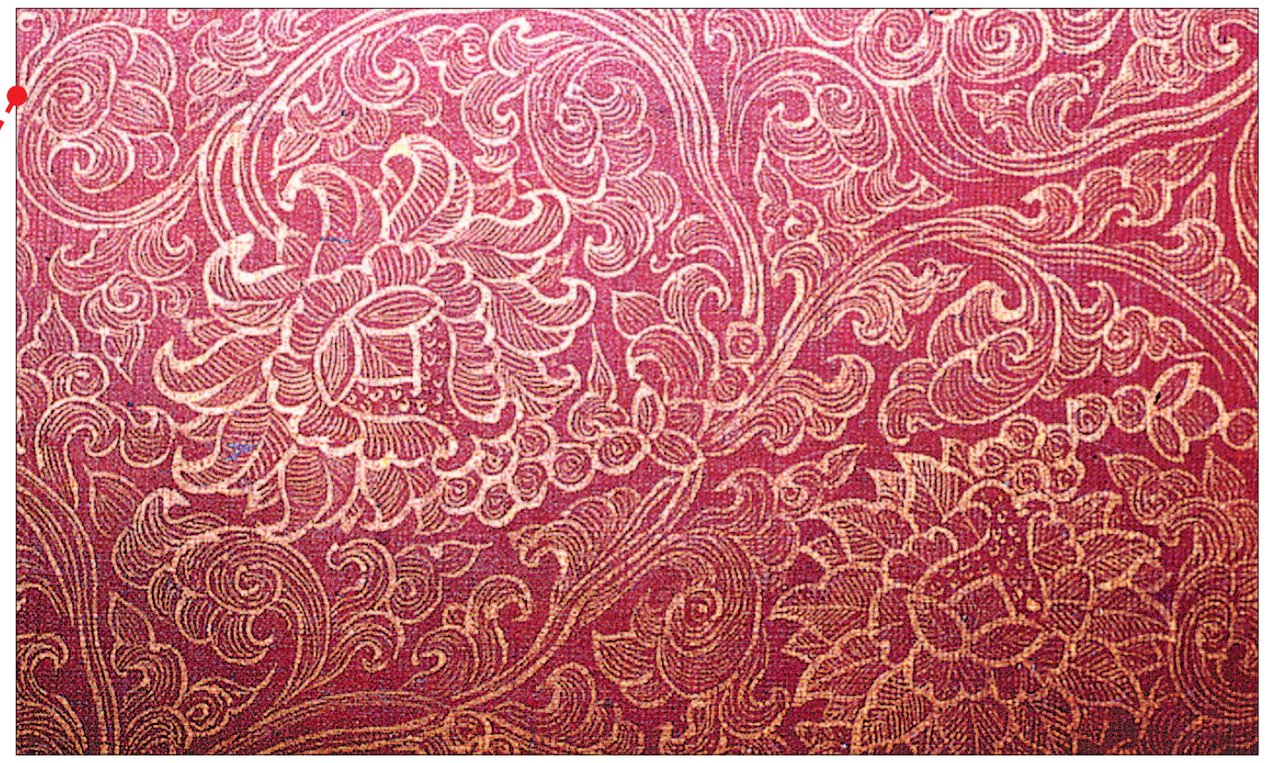
중생 속계(俗界)도 무상하지만, 법성 법계(法界)도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속성은 속계나 법계나 동일하다는 진리. 이것이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화엄사상의 요지이기도 하다. 불화 또는 불교미술에서 보는 세계는 법계가 무상하게 연기(緣起)-연생(緣生)-연멸(緣滅)하는 모습이다. 끊임없이 불교미술로 또 불교경전으로 보여주고 또 언급하고 있는, 이 중중무진의 아름다운 세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중생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지만 반야의 눈에는 보이는 광대무변한 장엄의 세계. 나를 맑혔을 때 그 세계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얼핏 보여준다. 그 광활하고 장엄한 세계 속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자아(自我)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이러한 장엄 세계를 화엄 사상에서는 온갖 꽃이 피어나 찬란하게 연기하는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을 '화엄(華嚴)', 깨달음의 꽃으로 장엄하는 세계라고 한다. 천년불교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고려시대. 당시 불교문화의 백미였던 고려불화. 고려불화 속에는 이 같은 법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미타여래도', 한 몸 가득 품은 극락

불국토라고 말하는 세계. 화엄정토, 극락정토, 미륵정토, 약사유리광정토 등 다양한 정토(淨土)가 있다. 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더러운 번뇌를 여읜, 말 그대로 정토, 즉 청정한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속세를 예토(穢土)라고 한다. 법계, 진리의 세계로 통칭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의 일면모를 직접 만나보기로 하자. 고려불화 중에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미타여래도' (그림1)



그림①



그림②

日 선림사 소장 '아미타여래도'
아미타부처 납의 문양들 '화려'
경전 따르면 '공기화 · 영서화'
문양 통해 극락세계를 표현해
당초문 일본용어 지양을 해야

그림①. 일본 교토 선림사에 소장된 〈아미타여래도〉의 모습. 고려 후기에 제작됐다.

그림②. 〈아미타여래도〉의 부분으로, 부처님 오른쪽 납의의 문양이다. 문양은 경전에 나오는 보상화(寶相華) 또는 우담바라(優曇婆羅)

디테일 속에 감추어진 진면목을 보도록 하자.

잎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송이는 일곱 가지 보배가 아름답게 열렸다.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자마금의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며, 불바퀴처럼 잎사귀 사이를 선연하게 돌고 있다. 꽃봉오리에서 온갖 열매가 맺히는 모습은 흡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 병과도 같으니라. 이 눈부신 광명은 그대로 깃발로 변해 헤아일 수 없이 많은 보배 일산이 된다. 그 보배 일산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일이 비쳐 나타난다.

–'보배 나무를 관(觀)하는 법' 〈관무량수경〉

아미타3부경 중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에 묘사된 극락정토의 모습이다. 아미타3부경 또는 정토3부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경전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으로 모두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정토세계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관무량수경〉에는 단계별로 만나게 되는 또는 체험하게 되는 극락세계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면 결코 가늠할 수도 또는 읽어 나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언급된 단위나 넓이 등 그 규모가 인간이 측량 가능한 한계를 훨씬 넘어서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읽는가. 그냥 읽는다. 머리로 이해하려드는 순간, 이해가 안 되기에 더 나아갈 수 없다. 작은 단위로 그것보다 훨씬 큰 단위를, 거친 것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미세한 것을 포섭할 수는 없겠다. 아무 생각 없이 독송해 나갈 때, 이는 우리 본원(本源)의 세계이기에, 그 바탕 세계로 융해될 수 있다. 한 생각 굴리면, 바로 본원의 세계와 차단되어 버린다.

공의 바탕에서 피어난 꽃

'아미타여래도'는 한 몸 가득히 극락정토를 품고 있다. 그 디테일(그림2)을 보면, 위에 인용한 극락의 나무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미타여래의 (정면에서 보아) 오른편 무릎을 덮은 납의(衲衣)에 그려진 문양은 모란도 아니고 국화도 아니고 석류도 아니고, 작은 속계의 꽃으로는 특정할 수 없는 천상의 꽃이다. 아니 속계의 모든 꽃을 합쳐 놓은 듯한 우주의 꽃이다. 이를 경전에서는 보상화(寶相華) 또는 우담바라(優曇婆羅)라고 하기도 한다. 우담바라란 무슨 뜻인가. 의역하면 '공기화(空起華)' 또는 '영서화(靈瑞華)'라는 뜻이다. 이를 서응(瑞應) 또는 상서운이(祥瑞雲異)라고도 한다.

공기화란 공(空)의 바탕에서 일어난 꽃이란 말이다. 영서화는 상서로운 기운 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응집하여 만든 문양이라는 뜻이다. 당초문이라는, 일본 학계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검증없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보상화, 공기화 또는 영서화라는 수승한 용어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상서로운 기운이 서로 연기하면서 우주의 잎사귀를 피우고, 꽃잎을 피우고 있다. 그 가운데서 석류와도 같은 거대한 씨방이 보이고 거기에서는 포도알 같은 여의주들이 줄줄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여의주 한 알이 한 우주이다. 무수한 우주들이 허허로운 바탕자리에서 춤추고 있다.

정적임 속에 파도치는 화려함

경전에 묘사된 아미타부처님의 '진신관(眞身觀, 진실한 몸을 관하는 법)'의 내용을 보면, "아미타불의 몸과 빛을 관(觀)하여라. 몸은 백 천 만억 야마천을 장식한 염부단금색(閻浮檀金色 또는 자마금색紫磨金色)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니라"라고 기술되었다. 60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라니! 백 천 만억 야마천의 장식이라니! 이러한 아미타의 세계, 극락세계를 한 폭의 그림으로 옮긴 고려시대 화승의 기개가 놀랍다.

'아미타여래도'의 디테일에는 끊임없이 무상하게 파도치는 극적인 화려함이 연출되어 있다. 깊고 고요한 자색의 바탕 위로 변화무쌍한 보상화가 피어난다. 여기서 그림 바탕은 법신이고 그 위에 연출된 디테일의 에너지 문양들은 보신이고, 그것이 서응(瑞應, 임금의 어진 정치가 하늘에 감응되어 나타난다고 믿었던 길한 징조)하여 모양새를 이룬 아미타의 전체 형상은 응신이라 하겠다.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법신과 보신이 적멸과 연기의 균형을 이루며,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황금의 땅, 천상의 음악, 흩날리는 꽃비, 극락조의 비상, 향기로운 미풍, 금강석 영롱한 연못. 극락정토의 풍경을 부처님은 한 몸 품고 있다.

이 '아미타여래도'를 어느 강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다양한 디테일까지 샅샅이 공개하며 설명을 하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디테일에 취해 있던 수강생 중 한 명이, 강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한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문양들이 뭡니까?" 이에 "바로 내 모습입니다. 바로 처사님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니, "네? 이게 제 모습이라고요?"라고 반문했다.

"네. 내가 번뇌를 벗었을 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 스스로 추하게 느껴질 때도, 또 나약하게 느껴질 때도, 불안해 질 때에도, 이 불화를 보시고, '내 본래 모습이 저렇게 청정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아시고, 우리 함께 수행정진 열심히 기운내면 좋겠습니다."

처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 고였다.

〈중앙승가대학 교수〉

우공침술 개인지도

우공침술의 TLS 침법은 근육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을 기계적으로 자극하여 몸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통증유발점을 기술적으로 자극하는 침법이므로 경락의 경혈들과는 무관한 과학화된 침법입니다. 따라서 통증치료에 관한한 TLS 침법이 단연 으뜸임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서 딱 6일 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침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딱 6일 만에 고통스러운 통증은 물론,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고 멋진 전문 침술인으로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우공침술원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완벽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지방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공침술'을 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신보선의 침의학과 건강·의학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054-7110

우 공 침 술 연 구 원

2021년
아랫녘수륙재보존회 신입생 모집

1. 모집대상 : 스님 및 불자, 작법무(불교무용)에 관심있는 일반인
2. 모집기간 : 2021년 1~2월, 3월 개강
3. 교육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38 도지정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전수관 3층
4. 연 락 처 : 055)246-3374, 010-3852-1760

교육과정

교육일시	강 사	강좌내용
매월 1·3주 월요일 (14:30~16:30)	석봉스님 지공스님	짓소리, 홑소리 안채비, 바깥채비
매주 화요일 (14:30~16:30)	보광화 수연화	작법무(학승무) 운심게, 다게, 삼귀의, 오공양, 요잡
매주 수요일 (14:00~15:00)	석봉스님 지공스님	<무료강습> 아랫녘수륙재활성화사업 일상생활 속에 심신달래기 사물, 입영, 착어, 독경배우기
매월 1·3주 목요일 (14:30~16:30)	현덕스님 원공스님	사물, 의식일부
매주 금요일 (14:30~16:30)	석봉스님 해공스님 지공스님	작법무(바라무) 천수바라, 사다라니, 요잡바라, 명바라, 화이재, 욕실게바라

특전 3년 교육과정 이수시 아랫녘수륙재 이사회 심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시험 자격부여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수륙재보존회 정식회원 인정가능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수륙재보존회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박원자의 母情佛心 ❹ 동산 양개의 어머니



▶ 한줄 요약
회창폐불을 극복하고 선풍을 진작한 동산 양개 스님.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 "못난 자식을 너무 그리며 살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는 "어미가 어찌 자식을 버리냐"고 그리워하며 "어미를 해탈시켜 불과를 이루게 하라"는 당부도 했다.

"어미가 어찌 자식을 버리겠는가"



그림 · 박구원

열일곱 살 먹은 사미승이 은사 스님 앞에 앉아 글을 배우다 말고 고개를 떨궜다. 책장으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나이든 스승은 모르는 체 하고 계속 문장을 새겼다. 그런데 책장이 눈물로 점점 적셔지는가 싶더니 끝내 사미승은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하고 말았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파하자' 며 책장을 덮는 스승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다.

20여 년 전, 한 노스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여든 일곱의 스님은 당시의 일을 또렷이 추억하며 다시 눈시울을 적셨다. 출가한지 칠십여 년이 흘렀건만 스님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가슴 아픈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 사미승을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스님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강원의 필수과목인 고승들의 글을 모은 책 〈치문(緇門)〉에 이 글이 실려 있는데, 스님들이 이 글을 배울 때면 여기저기서 훌쩍이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렇게 어린 제자와 은사 스님 모두를 울렸던,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많은 출가자들의 눈물을 쏙 빼고 있는 글은 대체 무엇일까. 1200여 년 전 당나라 양개 선사가 출가해서 어머니에게 올린 편지가 그것이다. 양개 스님이 쓴 편지에 답장한 그의 어머니의 글 또한 명문으로 전해진다.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 스님은 중국 선종의 5가7종 가운데 하나인 조동종의 개조로, 임제 선사와 더불어 당말 최고의 선의 종장으로 꼽히는 고승이다. 양개 스님은 8살부터 글공부와 심부름을 하며 절에서 지냈는데, 10살쯤 되던 어느 날이다. 〈반야심경〉을 읽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점을 발견했다. 학식이 많은 주지 스님에게로 달려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면서 물었다.

"스님, 저한테 이렇게 눈과 귀도 있고 코와 혀, 몸과 생각이 다 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어째서 없다고 하는 건지요?"

주지 스님은 어린 아이에게 선지가 있음을 알고 훌륭한 선사가 주석하고 있는 산으로 보내 머리를 깎게 했다.

많은 스님들을 울렸던 양개 스님의 편지는 양개 스님이 어린 나이에 부모와 이별하고 절에 들어간 후 몇 년이 지나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엎드려 들으니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에는 다 부모를 의지하여 태어나셨고 만물이 생긴 것도 다 천지의 덮어주고 실어줌을 빌렸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천지가 없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양육하여 준 은혜를 입었으며 실어주고 덮어준 은덕을 받았습니다.(중략) 망극한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출가한 공덕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생사애착의 강물을 끊고, 번뇌의 고해를 뛰어넘으며, 천생의 부모 은혜를 갚고, 만겁의 자비로운 어버이에 보답하며, 세 가지 세상과 네 가지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난다고 하였습니다.

불초 소자 양개는 금생의 신명을 버릴 때까지 결코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영겁의 근진(根塵, 육근육진)으로 반야(般若)를 완전히 밝히려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깊은 마음으로 저의 뜻을 들으시고, 이 못난 아들을 기꺼이 버리십시오. 조금도 애닯아하지 마시고, 저 정반왕을 배우시고 마야부인의 성후를 본받아 뒷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기를 기약하시고 오늘은 못난 이 자식과 이별하십시오.

그러나 이 일은 불초 소자 양개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정하게 흘러가는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이 '이 생에서 이 몸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구제하리'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어머니께서는 부디 이 자식을 다시는 생각지 마십시오.(중략) 마음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내고 나니 뜬세상 부질없이 우물쭈물 보냈음을 슬퍼합니다. 숱한 사람들이 공문(空門, 불문)에서 도를 얻었거늘 저만 홀로 세상의 먼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가 편지를 올리며 깊은 사랑을 하직하고 큰 법을 밝혀서 어머니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디 눈물을 흘리며 자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 몸이 없던 것처럼 여기소서.

10대에 쓴 편지가 이렇듯 어른스럽고 깊이가 있을 수 있을까. 막 출가한 스님들이 읽으면 어느 날 문득 집을 떠나 불문에 든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울컥할 것 같다. 아마도 많은 출가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에게 마음의 편지를 썼으리라.

양개 스님의 부모님은 예불하는 공덕을 쌓아 무탈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을 절로 보냈다. 신심이 깊은 분들이었으나 출가를 시킬 작정은 아니었다. 그런데 아들이 10살의 나이에 집을 떠난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어머니의 그리움은 바다 속보다 더 깊었으리라. 아들의 이 절절한 편지를 받고 스님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여나 돌아올까 기다리던 마음을 접었을까?

〈치문〉에 수록된 양개의 편지
"이 못난 아들을 버리 십시오"
어머니 답장엔 그리움·당부가
"어미를 해탈시켜 佛果 이르게"

양개, 모친 편지에 수행 매진
회창폐불 극복하고 선풍 진작

바람결에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양개 스님에게 닿은 걸보면, 스님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들 스님은 다시 붓을 들었다. 두 번째 편지는 출가한지 10년쯤이 지난 다음에 쓴 것이다. 양개 스님이 20대 초반일 때다. 훗날 수천 명이 모여 공부하는 한 산문을 이끌며 선의 종장이 된 분답게 문장이 빼어나고 진실하다.

불초소자 양개는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집을 떠나온 뒤로 남쪽으로 내려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바뀌어 집과는 어느새 만 리의 거리로 멀어졌습니다. 바라옵건대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거두어 부처님의 도를 생각하고, 뜻을 거두어 공(空)으로 돌아가 이별한 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에 기대어 동구 밖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중략) 대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닦고 효도를 행하여 천심에 합하고, 승려는 공문(空門)에 있으면서 도를 사모하고 참선공부를 하여 부모의 은덕을 갚습니다. 지금은 천산만수가 가로놓여 모자간에 아득히 멀어진 (세간과 출세간) 두 길이 되었습니다. (중략) 부디, 이 아들을 죽은 자식, 없는 자식처럼 생각하소서.

여전히 없는 자식으로 여기고 동구 밖에 나와 기다리지 말라는 아들의 절절한 편지를 받고 드디어 어머니가 붓을 들었다. 아들의 편지도 출중하지만, 그 아들의 그 어머니였을까, 삶을 통찰한 어머니의 글 또한 천하의 명문이다.

나는 너와 전생 인연이 있었기에, 모자간의 깊은 정을 맺게 되었을 것이다. 너를 가진 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처님과 하늘에 빌었다. 임신하고 달이 차서는 내 목숨은 가는 실끈처럼 위태하였으나, 내 소원이 이루어져 너를 낳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너를 보석처럼 아끼어 똥오줌도 더러운 줄 몰랐고, 부지런히 젖을 먹였다. 네가 자라자 서당에 보내고는 글을 익히게 하였는데 혹 돌아올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리곤 했다.

이제 네 편지에서 이 어미도 출가의 긴요함을 알았구나. 그러나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어미는 늙었으며, 네 형도 살림이 어렵고 네 아우도 가난하구나. 그러하니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자식은 어미를 버릴지라도 어미는 차마 자식을 버릴 수가 없구나. 네가 머나먼 타방으로 떠난 뒤에는 밤낮으로 눈물만 뿌리었으니, 실로 서글프고 괴로웠다. 그러나 너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내 어찌 네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왕상이 얼음 속에서 고기를 낚고, 맹종이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하여 오고, 정란이 나무로 부모의 모습을 조각한 효도를 너에게 바라지는 않겠다. 다만 네가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처럼 이 고해의 바다에서 나를 구해주기를 바란다. 부디 이 어미를 해탈시켜 불과(佛果)에 오르게 하길 바라고 바랄 뿐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면 집 떠난 너의 허물을 면치 못하리라. 잘 알아서 하길 간절히 바란다.

어머니의 이 편지 또한 출가자를 자식으로 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다. 네가 도를 이루어 이 어미를 해탈시키지 못한다면 집 떠난 네 허물을 면치 못하리라고 한 저 따끔한 경책은 출가자들에게 깊고도 깊은 발심의 회초리가 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마가 서 말 서 되의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 말의 젖을 먹여 자식을 키운다. 그래서 어머니의 뼈는 검고 가볍다고 한다. 어머니는 오직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헌신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천 번 만 번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고 전한다. 그러하기에 출가자들은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눈물을 떨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시 어머니의 힘은 위대하다. 이 편지를 받은 양개 스님은 그 후, 수만 여 사찰이 파괴되고 수십만의 승려가 환속해야 했던 회창폐불(會昌廢佛, 841~846)의 법난을 굳건히 이겨내며 수행에 매진해 스러져가는 선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수천 명이 공부하는 산중의 수장(방장)이 되어 후학들이 생사의 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포기한 양개 스님의 어머니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못내 자식을 그리워하다가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 큰 스님이 되어 나타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설이 있다.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로 믿고 싶다. 저 정도의 편지를 쓸 지혜롭고 대찬 어머니라면 자식이 도를 이루어 만 중생을 제도하기를 기도하며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내 삶이 아무리 외롭고 고달파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게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니까.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三界는 모두 '불난 집'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⑦ 장자의 방편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 먼저 여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 비유, 언사로써 방편을 만들어 법을 설하시는 것은 모두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위해서라고 이르지 않았느냐? 그러한 여러 설법이 모두 보살을 교화하고자 한 것이니라.

그러나 사리불아, 이제 또 비유로써 다시 이 뜻 밝히리니,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유 듣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리불아, 어느 나라 안에 유명한 장자 있었다. 그의 나이가 많아 이미 늙었으나 재산이 한량없어 전지, 저택, 하인들이 많았다. 집이 넓고 컸는데, 오직 문은 하나뿐이었다. 사는 사람이 많아 일백, 이백 내지는 오백 명이 그 속에 살았느니라. 건물이 썩어 낡았고, 담장과 벽이 무너지며, 기둥뿌리가 상하고, 대들보, 기둥이 기울어졌는데, 갑자기 불이 나 이 집이 타고 있을 때, 장자의 열 스물 내지 서른이나 되는 아들들이 그 집 안에 있었느니라.

장자가 큰불이 사면에서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해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비록 불붙은 집 문을 편히 나왔으나, 아이들은 불꽃 싸인 집안에 아직 남아 놀이에 집착하여 불난 줄을 몰라 놀라지도 두려워도 하지 않아, 불이 와 몸에 닿을 고통이 다가오는데도 철이 없어 몰라서 나오려 하지 않는구나.'

사리불아, 장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집에는 오직 하나의 문이 있고 그 더욱 협소하니, 아이들 어려 철없어서 노는 데에 정신 팔려, 행여 잘못되어 저 불에 타버릴까 봐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러주되, 이 집이 불에 타고 있으니, 늦기 전 빨리 나와 불에 타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나오라.' 하고 외쳤느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가엾이 여겨 좋은 말로 간곡히 타일렀건만, 아이들은 놀이에 넋을 잃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여,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도 하지도 아니하여 끝내 나오려 하지 않아,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만 동서로 달려 놀며, 아버지를 바라볼 따름이었느니라.

그때 장자가 다시 생각하였다. '이 집이미 큰불에 타고 있으니 나와 아들들이 지금 나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타 죽으리라. 이제 방편 만들어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아이들의 진작부터 마음에 각기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갖가지 기이한 노리개를 원하리라 여겨, 이들에게 일렀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노리개는 여기 있다. 좀체 얻기 어려운 것들이니, 만약 지금 안 가지면 후에 반드시 후회하리라. 여기 양거(羊車), 녹거(鹿車), 우거(牛車)가 문밖에 있으니 가지고 놀만하다. 너희들은 불붙은 집에서 어서 나오너라. 너희들의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주리라.'

그때 아이들은 아비가 말하는 노리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들어, 각기 씩씩하게 서로 밀치고 떠밀면서, 불난 집에서 다투어 나왔느니라. 그때, 장자 아들들이 편안히 나와 네거리 길 위의 맨땅에 앉아 다시 아무 일 없음을 보고, 마음이 놓여 한없이 기뻐하였다.

아들들은 각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까 준다고 한 노리개, 양거, 녹거, 우거를 이제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 대목은 〈비유품〉에 있는 '불난 집(火宅喩)' 이야기다. 불난 집에 놀고 있는 아들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아버지가 쓰는 방편 이야기다. 중생의 번뇌와 욕망을 흔히 불꽃에 비유해 말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삼계(三界)가 모두 불난 집이라 하였다. 이는 중생의 세계가 안전지대가 아닌 위험한 곳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느 것도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이 없다. 몸도 그렇고 목숨도 그렇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불안과 고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부처님이 방편을 쓰시는데 세 개의 수레를 주겠다고 말해 불난 집을 나오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삼승법(三乘法)인 성문, 연각, 보살승이다. 이를 권교(權敎)의 법문이라 하고 법화법문을 실교(實敎), 일승법(一乘法)이라 한다. 이 일승법을 백우거(白牛車)라 하는데 흰 소가 끄는 수레다. 불승(佛乘)을 상징한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곧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탐욕 제어 '관용' 실천하는 것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⑦ 불투도계의 실천

오계 가운데 두 번째인 불투도계(不偸盜戒)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즉 훔치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훔친다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타인의 일에 대해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 시간 낭비 또는 책임 회피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

훔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훔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훔칠 수도 있고, 마력이나 주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을 기만하여 가로채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중량이나 치수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도둑맞은 것에 대해 적절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보시를 받기도 한다.

훔치는 행위에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투도계를 어긴 것이 된다. 첫째는 취해진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취하려는 것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의 인식이다. 셋째는 훔치려고 하는 '의도'이다. 넷째는 훔치기 위해 어떤 방법이나 노력의 사용이다. 다섯째는 실질적인 물건의 획득이다. 어떠한 수단이 이용되든지 간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것을 취한다면 반드시 업보(業報)가 따른다.

도둑질에 대한 죄의식과 이 죄로 인한 업과(業果)의 정도는 취해진 물건의 가치와 원래 주인의 미덕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훔친 물건이 귀한 것일수록 죄는 무거워지며, 미덕을 갖춘 이로부터 훔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자로부터 훔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된다. 도둑질로 인한 업보는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설령 다른 선업(善業)으로 인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라도 가난할 것이며,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富)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도둑질은 인간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세 가지 번뇌[三毒] 가운데 하나인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다. 또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재산에 대한 탐욕이 더욱 크다. 이처럼 탐욕은 제어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탐욕을 무엇보다 강하게 경계한다.

탐욕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너그러움이라는 특성을 계발하여 탐욕을 가라앉힘으로써 훔치게 되는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즉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현상은 잠시도 고정됨이 없이 생멸변화함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런 이치를 몸소 체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일곱 빛깔의 무지개를 잡으려다가 허탈한 심정으로 주저앉을지라도 말이다.

너그러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용'이라는 선한 성품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아낌없이 베풀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탐욕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관용은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용의 실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에서 근원한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투도계의 실천은 궁극적으로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⑦ 고대 인도시대의 전염병

수호신으로 변모한 악귀들

당연히 석가모니 시대에도 질병은 존재했을 것이고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규모의 전염병도 창궐했을지 모른다. 당시의 질병이나 치료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전혀 없다. 다만 그 질병의 흔적을 경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신화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베다에서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귀들을 '그리하(Graha)'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본래 어디에 '사로잡히다'는 뜻이다. 귀신들린다는 뜻으로도 쓰이며, 그렇게 만드는 신도 그렇게 부른다. 한마디로 악귀다. 초기 인도의 몇몇 악귀들은 특별히 여신들이 더 그러한 경우가 많으며, 질병을 의인화한 존재들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이들은 극복해야할 존재였으며 조복 후에는 불교에 수용되어 수호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변모한 악귀들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는데 자신들이 과거에 소유하고 있었던 특성들, 즉 질병적 특성들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빠른 질병의 전파력과 감염성(graha)은 무엇인가를 빨리 추격해 포착하는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능력은 불교에서 수용된 질병의 악귀를 신속한 체포와 구금의 신으로 탈바꿈시킨다.

인도를 포함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된 불교의 대표적인 전염병의 신은 여신 하리띠(Hārītī)인데 이는 천연두의 여신이다. 이 여신의 유행은 기원전후 스왓트(Swat) 지역의 조각에서 확인되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인도에서 유행했던 질병의 흔적을 보여준다. 3세기경 한역된 〈귀자모경(鬼子母經)〉, 유부비나야잡사(有部毗奈耶雜事에) 등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 악신은 본래 아이를 납치하여 잡아먹던 야차녀였다. 하리띠는 붓다의 교화에 의해 죽음의 여신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갓 태어난 신생아와 그 산모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시작하여, 낙태되거나 유산된 아이의 혼령을 보호하는 여신으로, 또는 그의 산모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신으로 변모한다. 후대에 이 여신은 천연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 뱀에게 물린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전 아시아 지역에 걸쳐서 그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잔타 석굴에 호법신장으로 많이 조성된 하리띠 신상은 당시 불교승려들이 대중들의 질병에 대한 공포를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다른 고대 인도의 질병의 신으로 스깐다(Skanda)가 있다. 이 신은 본래 고대 힌두교의 전투신이었으나 불교에 흡수되어 대표적인 호법신장으로 발전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위태천(韋陀天)이라고 부른다. 하리띠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된 불교의 신이다. 그렇지만 이 신격이 고대 인도의 질병의 신이라는 점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신이 처음 등장한 후 고대 인도사회의 전통적인 신위체계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 신이 갖는 질병적 위험성을 탈락시킨 후에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힌두 문헌에서 스깐다의 흔적을 살펴보면, 이 신격이 질병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집단과 함께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리그베다에서 질병을 뜻하는 그라하(Graha)가 스깐다와 함께 자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스깐다 신이 고대 인도사회에서 질병을 암시했다는 단서는 인도의 초기 의학서인 짜라까상히따(Carakasaṃhitā)와 수슈르따상히(Suśrutasaṃhitā)에서 특히 소아성 질병을 이야기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특정 어떤 병이라기보다 병의 외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징후를 표현할 때 더 많이 쓰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신이 불교에 흡수된 이후에 감추어졌던 과거의 흔적 즉 질병으로서 면모가 다시 드러난다는 점이다. 불교에서 스깐다가 전투의 신일 뿐 아니라 도적(盜賊)의 신으로도 묘사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빠르게 침투하여 상대를 점령하는' 특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경에서는 탈취된 불사리를 되찾아오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스깐다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과거 질병이 갖는 특성들을 의인화하여 그 기능을 순전히 호법과 풍요의 기능으로 역전시키고 있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신 화 불 사

매 물 안 내

법 당	이익공 27평	3,000만원
요사채	초익공 ㄱ자집 33평	3,000만원
대중간	초익공 45평	4,500만원
사주문	7포 약 10평	2,000만원

위 사찰 제목은 다른 장소로 옮겨 지으려
정성을 다해 철거했으나
부득이 철거 비용도 안되게 처분하오니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불사 합장

☎ 010-6545-2020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9호 | 17 | 전면광고

여러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것을 대자라고 하고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는 것을 대비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법광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010-5883-225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행자승(20세 ~ 45세)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절에서 요양삼아 기도하고 소일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경기도 양평 기도영험도량 천인사
031)773-7746 , 010-8777-1775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3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수목장 동참인 모심
대한불교진조계종 토굴
백장사에서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위 부지에 소규모로 조성된 수목장, 추모공원 관리에 동참하실 주지스님과 재가자를 모십니다.
대표 유담 합장 010-4501-2315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同聲相應하고 同氣相求할
같은소리로 상응 같은기운 서로 구
因緣을 찾습니다.
인연
鄭○溶 (남.64세) 010-6401-2023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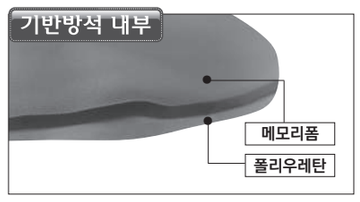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9호 | 18 | 전면광고

끝내 한 세상만이 아닌 것인데 어리석어서 영원함을 사랑하나니 이로부터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으며 몸은 죽어도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유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포 교 원 할 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시장 옆 20평
- 보 300, 월 45 코너 남향
- 공양주, 부전 일할분, 쓸분
- 법당 철거, 폐기물 처리 전문

010-5381-1419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대지 22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3개, 현재 운영중 즉시 법회가능(몸만오시면됨)
- 가액 : 대출 5천 5백 안고 2억 5천만원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5718-0073

포 교 원 안 내

◈ ◈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 ◈

010-3714-1018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매매시 기증) ● 가액:3억(대출6천만원 포함) ● 전.월세가능(1억50만원)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전원주택 및 토굴용지 안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미암면 소재
- 땅 200평(답) 현황도로접 산아래 남서향 계곡이 흐르고 일명 매물샘(마르지 않고 졸졸졸)
- 가액 : 2000만원

010-7369-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 면적 181평, 법당, 지장전, 요사채, 별채, 산신각, 종무소 외 넓은마당-사찰 외 넉넉한 주차장
- 가액 : 6억 5천만원, 은행대출 2.5억~3억가능(신용에 따라)
-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조용한 사찰, 스님 노환으로 매각

010-5140-5680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사찰(급)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 전주시 전경 한눈에, 이성계 기도처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년세 10만원) ● 법당(요사체 최신형), 극락전(목조신축) ● 가액 : 4억5천만(대출 2억5천만, 추가대출 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석불, 석탑 포함(석불 1억5천 조성) ● 납골당 설치됨, 시내중심, 대나무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 ● 1억5천만원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 잔금 5천만원 3년간 분할납부 ● 용왕전 약수터 2억 토목공사중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3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1083-1번지 2층
- 실평수 40평, 큰방 1개, 공양간 1개, 베란다 1개, 화장실 1개
- 권리금은 보시고 결정하세요.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십만원

010-5818-7488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연화부원 (蓮華部院)

연화부원은 태장만다라 12대원의 하나로서 중대팔엽원 북쪽에 위치하며 성관자재보살(聖觀自在菩薩)을 주존(主尊)으로 하여 보살21존과 16사자(使者)를 합해 총 37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일경소에 따르면 여래가 대비(大悲)의 삼매(三昧)에 안주(安住)하여 중생의 온갖 선근을 성취하게 하는 덕을 나타낸 것이 본원의 의미인 것이다.

본원은 관자재보살 대비의 덕으로 중생을 번뇌(煩惱)의 때(垢)에 더렵혀지지 않고 본래 갖추고 있는 정보리심(淨菩提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마치 흙탕물에 오염되지 않고 청정무구한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음을 말한다. 본래 갖추고 있는 정보리심을 제(諦)라 하는데 실담범자로 사따(諦)라 한다. 또한 무집착(無執着)을 아사끄따(asakta)라고 하는데 사(sa)를 진리(諦)라 하며, 본원에서는 선근(善根)의 종자(種子)로 사용한다.

수행으로는 대비삼매(大悲,三昧)에 들어 무분별 수행인 사마따(止)수행으로써 모든 망념을 그치고, 정(靜)에 들어 정보리심을 사유관찰(思惟觀察)하는 구별의식의 수행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혹은 지관쌍수(止觀雙修)라 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④ 심장장애인 이상복 씨



보리수아래 대만불교문화 순례에서 룸메이트 성인제 씨와 함께한 이상복 씨(우측).

심장이식으로 얻은 새 삶, '나눔' 회향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은 15개이다. 이 중 심장, 신장 등 내부기관의 이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의 신체 내부장애가 상당수다. 내부장애는 외관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올해 66세인 이상복 씨는 신체내부장애 중 심장장애인이다. 2018년 1월 심장이식 수술로 새 생명을 얻은 지 만 3년이 됐다. "젊은 시절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천방지축처럼 살아왔다"는 이상복 씨는 우연히 음악방송에서 찬불가 '바람 부는 산사'를 듣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 노래는 이상복 씨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고, 이후로 이상복 씨는 절을 찾아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는 불자가 됐다. 그렇게 시작된 신행생활은 점차 이웃과의 나눔으로 이어졌다.

이상복 씨는 파주 한울타리공동체 원장으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했다. 다음카페 '합장하는 사람들' 회원으로 108산사 순례를 동참하는 등 불교공부와 수행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심장에 이상이 생겼고, 가족의 도움으로 인공심장판막수술, 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등 두 번의 수술과 여러 차례의 스탠스 시술을 했다.

이상복 씨는 아픈 중에도 40여 개월 동안 108산사성지순례를 회향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합장하는 사람들 지도법사인 혜정 스님과 도반들의 도움 덕분이다. 그는 "한 계단 오르고 쉬고 또 한 계단 오르고 쉬며 올랐던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상복 씨의 심장은 더 악화됐고, 결국 한국심장재단과 지인들의 후원으로 심장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병원에서 〈숫타니파타〉를 사경하며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약사여래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지장보살님, 저에게 심장을 기증해준 분의 극락왕생을 바랍니다"라고 되뇌었다.

무사히 이식수술을 마친 후 '한사랑 파주공동체'로 돌아온 이상복 씨는 심장 공여자에게 감사하며 그를 위한 49재를 모셨다. 그리고 "부처님 가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는 원력으로 나눔봉사를 시작했다. 전국 복지시설을 찾아 직접 만든 붕어빵을 나누는 '사랑의 붕어빵 나눔'은 따뜻함을 전하는 마음 그 자체였다. 무료급식소, 장애인 거주시설과, 파주 파평 노인정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지만 현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이상복 씨는 얼핏 보기에 장애와는 무관해 보인다. 바로 내부 장애 유형의 특징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유형은 15개 유형이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장애인은 다시 신체외부장애인과 신체내부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신체외부장애는 흔히 알고 있는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장애이며,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 심장 · 간장 · 호흡기 · 장루 · 요루 · 뇌전증장애 등이다. 겉보기에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장, 심장, 간, 호흡기 등에 이상이 있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상복 씨가 갖고 있는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또 신장장애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장루 · 요루장애는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에, 뇌전증장애는 뇌전증(간질)에 의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찰을 찾은 뇌전증장애인이 발작을 하거나 장루 · 요루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으로 곤란해 할 때는 놀라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많은 갈등과 편견, 소외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불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해한다면 갈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장애인들 또한 함께하는 도반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합장
총무원장 **동진**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❹ 니르말라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



▶ **한줄 요약**
이성보다 감성으로 살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

'가슴으로 살기 위한' 의식확장 길



니르말라 (Nirmala)는…

오랜 영적 추구 끝에 1998년 인도에서 심오한 영적 깨달음을 경험한 후,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영성 모임을 갖는 한편 '하나임의 영성 멘토링 Nondual Spiritual Mentoring'이라는 직접 상담과 전화 상담을 진행해 왔다. 그는 사람들이 분리의 환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영적 진리를 직접 경험하도록, 존재의 더 미묘하지만 더 만족스러운 내면의 차원들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돕는다. 저서로는 〈나는 없다 Nothing Personal〉, 〈그것은 그것이다 That Is That〉, 〈신비와의 만남 Meeting the Myster〉 등이 있다.



운명이라는 커리큘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머리로 사는 것' 과 '가슴으로 사는 것' 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머리 아프다' 고 할 때의 상태와 '가슴 아프다' 고 할 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머리' 와 '가슴' 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머리는 주로 개체의 생존과 번성을 위한 두뇌 활동과 관련되는 반면, 가슴은 "가슴에 새기다", "가슴이 내려앉다", "가슴에 묻다", "가슴이 벅차다" 등의 용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보다 더 깊은 현실이 강하게 경험되는 장소로서 쓰인다. 마음의 큰 울림을 나타내는 경우를 묘사할 때에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라고 하지, "머리를 울리는 감동"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가슴' 과 '심장' 이 똑같이 'heart'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슴' 이 육체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슴' 은 우리들 존재의 더 광대한 진실을 가리켜 보이는 단어이다. '가슴' 은 나와 너를 따로 구별할 수 없는 존재 전체의 뿌리이면서도 우리들 각자 각자에 스며들어 있는 무엇이다. 그리하여 '가슴으로 산다' 는 것은,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아귀다툼을 하지 않고, '한계 없는 지혜와 사랑의 원천으로서의 우리 자신' 을 거리낌없이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어떻게 해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곧 '운명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 파도를 타고 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운명이란 것을 사주팔자로 국한시켜 보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길흉화복' 이고, 길흉화복은 대체로 재산과 권력과 명예의 크기와 그 '따고 잃음' 과 상관된다. 운명이 나에게 선물하는 희로애락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타고 놀기' 위해서는 사랑이든 권력이든 재산이든 그것의 '따고 잃음' 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한 내공 쌓기가 필수적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에고도 그만큼 높아지지만, 에고의 성을 더 높이 쌓기 위한 전투에서 늘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어서 필연적으로 실패의 경험이 따르게 마련이고, 재산이 낮아지는 그만큼 자존심도 추락한다. 이런 상승과 추락을 반복할수록 그는 점점 더 자기 자신과 재산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내가 가진 재산의 크기를 자신의 크기로 착각하던 데서 더욱 더 벗어나서 재산이라는 것을 내가 부릴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운명의 노예' 에서 '운명의 마스터' 로 격상될 수 있다. (권력이나 명예 등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운명이란 사람을 더욱 더 본질로서 살게 만들기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커리큘럼은 윤회전생을 통하여 더욱 더 심화학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의 노예가 아닌 마스터는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 내가 아닌 것을 이미 터득한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이 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다! 따라서 가슴으로 살기 위해서는 머리와 자신을, 감정과 자신을,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생기는 온갖 부작용을 경험하고 난 뒤라서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가슴으로 살아가는 법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여기는 것에 너무나 길들여져 왔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몸이고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은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쉽사리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머리로는 몸과 마음과 감정이 나의 진정한 정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과 가치관은 너무나도 쉽사리 몸과 마음과 감정을 자기 자신과 밀착시켜 버려서 거리를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

한계 없는 지혜, 사랑 원천
더멀리 체험하는 지시등 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듣자

니르말라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법을 연습할 것을 추천한다. 그가 제시하는 수련법들은 사실 모두가 다 '가슴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가슴으로 살아가는 법' 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이 순간 당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소리, 생각, 당신 주변의 물체들. 머리로부터 보거나 듣거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다음에는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아차리십시오. 이제는 서서히 지각의 근원을 가슴으로 내려보세요. 가슴을 지각하라거나 가슴 안에 있는 것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센터로부터 주변을 느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슴 센터에 손을 얹는 것이, 그곳을 당신의 바라봄의 시발점이 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당신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의해서 보여지도록 허용하십시오."

누구나 '가슴을 울리는 감동' 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슴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일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가슴으로 소리나 음악을 듣고, 가슴으로 저녁노을이나 미술 작품을 바라보고, 가슴으로 다른 사람들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가슴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일은 머리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경험을 선물해 준다.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수천억 원을 가진 부자와도 같다. 가지고 있는 돈을 아무리 쓰고 또 써도 다 쓸 수가 없다는 그 자유함, 그 풍요로움을 상상해 보라. 가슴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마음의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가슴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묘법인 것이다.

사랑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다

머리를 통하여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할 때마다 의식은 단단하게 조여지고 수축된다. 근육이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요구되듯이, 의식이 조여진 상태는 억지로 힘이 들어간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아주 가는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만의 견해에 따라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기 쉬워서 관점이 좁아져 있기 마련이다. 머리로 하는 생각과 의식은 근본적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 모두를 흡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경험에 더 매달리고 싶어 한다. 머리로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불만과 불완전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정상인 것처럼 되어 버린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머리로 생각을 굴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코를 바짝 들이대고 TV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생각의 내용물이 의식 바로 앞에 놓여지게 된다. 가슴으로 중심을 내려보내면, 생각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가슴 아래로부터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경치를 내려다보듯이 생각의 내용물들을 더 멀리서 조망하게 된다.

가슴으로 바라보기가 특별히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 때, 더 열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경험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열린 상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감각, 생각, 느낌, 사물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경험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 모든 것에 거리를 두기만 하면, 우리는 경험에 함몰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다. 나와 사물 사이, 나와 나의 감각기관이 작용하는 사이, 사물과 사물 사이에는, 언제나 빈 곳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이 존재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음악이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인 것처럼, 모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은 사이사이의 공간이고, 그 공간을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더 부분이 아닌 전체를 살 수 있게 된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되면, 의식이 더 넓어지고, 더 개방적이 되고, 의식과 의식 안에 있는 대상들 사이의 경계선이 더 희미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느낌이 더 뚜렷해지고, 머릿속을 오가는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지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의식이 가슴을 통하여 흐를 때는, 일어나고 있는 진실의 훨씬 많은 부분을 포함하게 된다. 그 결과, 경험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 삶을 좁은 시각에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대신, 가슴의 내용을 깊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삶이 늘 부족하고 옹색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머리로 바라보는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 사랑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을 살게 될 때, 삶에는 더욱 더 강렬하고도 광대한 아름다움과 완전함, 놀라운 신비가 현존하게 된다. 가슴으로 살면서 아낌 없이 사랑을 줄 때, 삶은 가능성과 창조의 무한한 놀이마당이 된다.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행 스님

마음을 일심으로 뿌리에다 두어라

마음공부 않고 몸을 벗는다면

질문 :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 몸을 벗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 지금의 그 의식과 관습이 죽어서도 남아 가지고는 한 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게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에는 뭐냐. 그 고생을 하면서 장만해 놓은 내 집, 내 가정, 내 재산이 있다는 의식과 내가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은 갔어도 마음은 그대로 거기 있으니, 살아서 몸뚱이를 가지고 참섭을 해도 참 귀찮을 노릇인데, 이건 보이지도 않는 데서 집집마다 일일이 참섭을 하고 돌아다니니 이거는 못할 짓이다 이거죠, 자식들이. 그게 자기 2세인데, 그 2세인 자기를 자기가 아니라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관습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가 떠나려고 해도, 집안 재산과 자식들과 가정에 대해 착을 모두 떼었는데도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 도리를 몰라요. 내 몸의 중생을 제도 못 했어요.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인과로써 생긴 악업 선업을 그냥 녹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죽었는데 말입니다, 아, 떠억 나서서 가려고 하니까 이게 그림자처럼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나서 앞을 막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습관에 의해서, 내가 그 도리를 살아 있을 때 몰랐기 때문에 죽은 뒤에 그것들이 모두 나타난 거죠.

야, 하다못해 똥을 봐도 똥 묻으면 어쩌나 하고 가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색색(色色)으로 참 천차만별로 다른 모습들이 질경이같이 그냥 벌어져 있으니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인과로써 인연을 가진 사람은 머리 풀어 산발을 하고 그냥 귀신처럼 들이덤비죠. 눈 없는 게 들이덤비지, 팔 없는 게 들이덤비지…. 온통 과거에 산 대로, 자기가 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냥 인연이 되어 가지고 내 몸속에 다 있으니, 지금 모습은 다 그냥 사대(四大)로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아, 그 인연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는 어디를 가도 쫓아다니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딜 갑니까? 그걸 훌렁 벗어 버려야 자유인데, 훌렁 벗어 버리지를 못해서 아주 배어 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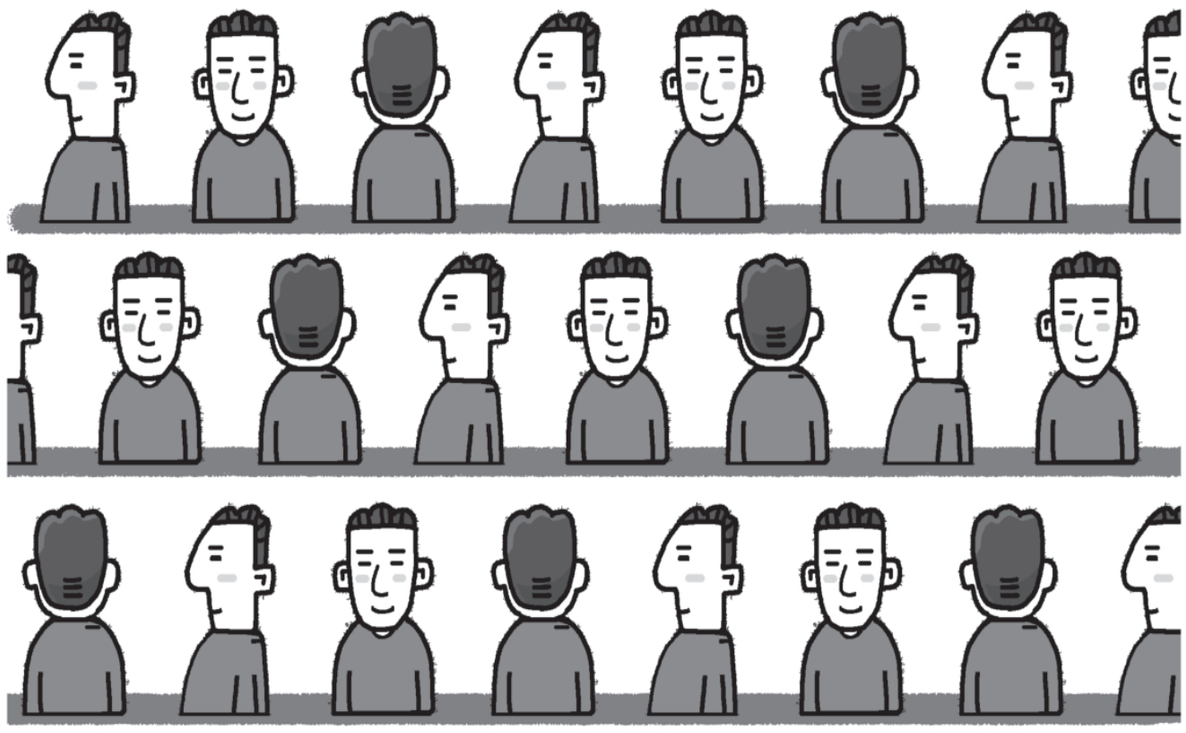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을 넘어간들 안 쫓아가겠습니까, 들을 넘어간들 안 쫓아다니겠습니까? 한 바퀴 돌아서 이 세상에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똑같이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야 무(無)의 세계에서도 보이질 않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없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지금 정보실에서 정보원들이 정보국장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를 감시한다고 합시다. 도솔천에서 감시를 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아예 입력이 돼서 항상 통신이 되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니 몇 생을 돌아가도, 오백 생을 돌아가도 뭐, 꼼짝없이 꼭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으시라 맡겨 놓으시라,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되맡겨 놓으시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일체 만법을 다 작용하면서 나를 이끌었으니 난 심부름만 했지, 내가 주인이 돼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거니까 주인이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놔야 그것이 몽땅 벗어지는데, 이건 만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

그러니 과거에 짊어져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도 죽겠는데 또 미래에 나올 것을 연방 입력을 해 넣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입력이 되니까,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게 몽땅 지워져서 정보원에서 컴퓨터에 넣어 봐도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홀랑 벗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그게 벗어졌어도 만약에 그게 찌그럭지라도 조금 남았으면, 나라는 게 남고 그 관습이 그냥 남았다면, 강을 건너가야 할 텐데 물이 깊어서 건너갈 수가 있나. 그러니 영혼이 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이 만약에 배를 기다린다 한다면, 오백 생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저 언덕을 넘어, 강을 건너서 만나리. 넘어서면 영원한 밝음이 있으리." 하고, "아제아제바라아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려면 '지수화풍,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니로구나. 내 몸속에 있는 것도 둘이 아니로구나.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생각 끄떡하면 건널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알고 있는 것은 죽어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니라. 그러니 생시에 알고 있다면 꿈에도 알고 있는 거고 죽어서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한생각을 하면 그냥 강도 들도 따로 없느니라. 아무리 높은 산이든 낮은 들이든 깊은 강물이든 불 속이든, 어디에 타 죽는 것도 없고 빠져 죽는 것도 없고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안다면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뿐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자꾸 보고 듣고, 듣고 듣고, 보고 보고, 가고 오고, 만나고 그러는 게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공해 버렸으니까 그것을 알면, 마음으로 알면 누적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듯이 그렇게 돼 있다 이 겁니다. 이게 하치 않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세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이 없이 현실 속에서 참나를 완전히 알기만 한다면…, 세상을 모두 감지하고 조절해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독경이나 백팔배를 하는데

질문 : 마음이 집중이 안 되어 독경을 하거나 백팔배 등 절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수행 방편도 타력에 의지하는 것인지요.

답변 : 그 말을 나무로 비유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잎새가 헤아릴 수 없죠? 나무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들은 많고 그 잎새는 더 말할 거 없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을 읽는다 하면 잎새를 세는 거와 같고, 또 백팔배를 한다면 바로 나무를 만져 주는 거와 같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무와 가지와 잎새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잎새를 아무리 세어도 센 사이가 없을 테고, 가지를 아무리 더듬어 줘도 더듬어 준 사이가 없을 겁니다.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이전에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은 다 가르치시길 "얘야! 나뭇가지도 아니고 잎새도 아니니라. 뿌리에다 돌리거라. 마음을 일심으로 뿌리에 두어라.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 과정은 뿌리로부터이니라. 그러니 들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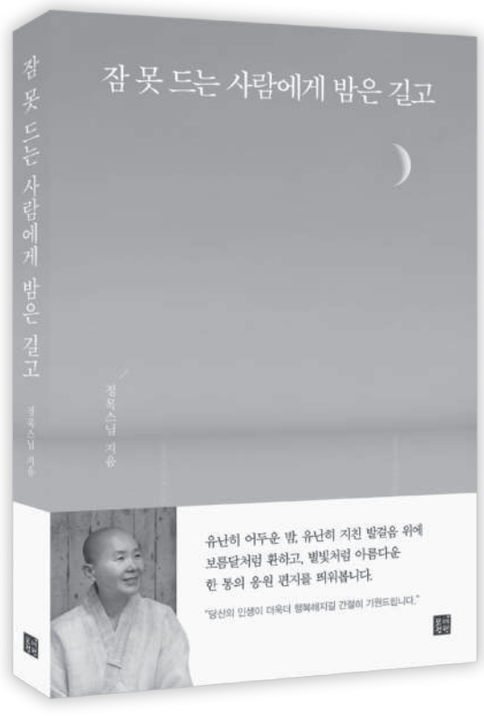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도 고통도 아닌 그 작용 속에서 바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법이 돼야

☞ 21면에서 계속

이고 내는 모든 것을 뿌리에서 들이고 내는 것이니라.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모두 죽어 버리고 만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뿌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뿌리에 물을 촉촉하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지를 쓰다듬지 않아도, 이파리를 세지 않아도 그 나무는 아주 싱싱하고 푸르르게 자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나무 잎새나 나뭇가지나 나무 둥치나 이런 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뿌리부터 알고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알아라. 그럼으로써 경을 읽되, 경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경을 보지 않는 이치가 나오느니라. 절을 하되 절을 하는 사이가 없이 할 수 있느니라. 또 경을 보되 귀로 보고 모든 만물만생의 소리를 듣되 바로 눈으로 듣는다.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눈으로 듣는다도 없고 또 귀로 본다는 것도 없이, 바로 하나가 불끈, 하늘을 끼고 돌아가느니라." 이런 뜻에 속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수십억의 의식을 두고, 생명을 두고, 모습을 두고 있는 이 몸이 그 나무와 같이 아주 크다면…, 나무라는 것은 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나무는 아주 크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고 멸하고 이러는데 사람만이 이런 고초를 겪고 이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행복이 엇갈린 세상 속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행복도 아니요, 고통도 아닌 그 작용 속에서 바로 한생각 일어나는 것이 법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으면서, 대천세계 모두 돌아가게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탁 포착하는 그런 계기가 되라 이런 얘깁니다.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마음 내기 이전 불성 말입니다.

그거를 일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들이고 내느냐. 마음이 들이고 내는 거다.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끌고 가니, 그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서 선(善)의 공덕 길로 끌어들여라." 하구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질문 : 요즘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저희 같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일 쳐 봐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에겐 가난을 되물림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답변 : 우리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디다. "스님!"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참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그냥 꿰뚫어 알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난한 것도 죕니까? 가난한 것들이 댁에서 과거에 부자로 살 때에 남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치않게 봤기 때문에 또 한 바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외려 그걸 공부로 아세요. 공부로 알고 거기다 놓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아하! 그 아주 평화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괴로운 게 닥치는 것도 있구나.' 이 양면을 다 내가 겪어 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양면이 다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살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질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도 공부니까. 또 '가난하게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다 공부로 알라' 하는 것도 그 앞서 그러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또 어떠한 게 닥쳐도 그 닥친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양면을 다 알았단 말입니다.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닥쳤는데,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 양면이 다 둘이 아니게 공부구나.' 하고 그냥 공부로 아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요, 스스로, 스스로 옭매듭이 찰찰찰찰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허허. 여러분들은 그 풀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또 보지 못하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불성이 진짜로, 진짜로 자기 뿌리라면 그렇게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계의 자기 뿌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걸 대치하고, 보이는 데서는 육으로 대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아니게, 심봉과 바퀴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바퀴에 심봉이 끼지 않았다면 중심이 끼워지지 않았다면 바퀴가 어떻게 이탈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심봉과 바퀴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데다가 그냥 물건을 넣어야 물건이 갈려 나오지, 돌아가지도 않는 데다가 물건을 넣는다면 갈려 나옵니까? 진짜로 이렇게 편안한 거를….

예를 들어서 '내일도 비가 오면 어쩌나, 어쩌나.' 이러고 할 게 아니라, 허허허, 얼른 쉽게 말해서 이 비 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비가 오면 내 이 설법을 해야 할 텐데 이거를 어쩌면 좋은가.' 이렇게 끌탕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연등부처가 알아서, 모두 두 몸이 아니고 모두 자기 제자들이고 자기 한 몸인데, 자기 자식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할라구. 근데 내가, 이 몸뚱일 가진 내가 바등바등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걸음 걸어가는 대로 오거든요.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안 오게 되면 안 오는 거고. 내가 했다고 나를 세우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기형아일 수 있다는데…

질문 :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요,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너무 겁이 나서 낳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까요?

답변 :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린애를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기형아가 될 확률이 90, 80% 이렇다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 소릴 듣는 순간 "걔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걔한테 관해. 정상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그러고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못 믿는 거죠. 아예 병원의 의사 말만 저거 해서 울고 찌고 그러고 와 가지고는 그냥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다고 그냥 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에이 저, 나무때기 시집을 보내지.' 그러고 그냥 저거하죠. 그러면요, 고 뒤에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병원 의사가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보더니만 말짱하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수차에 거치면서 업이 엉겨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쉽게 그렇게 단번에 풀 수 있는 자체가 바로 자기네들인데 그거를 가르쳐 줘도 그걸 '설마인들' 그러거든요. 거죽으로는 "네" 그러면서 속으론 아니올시다야, 그냥. 벌써 아는 걸, 뭐. 그러면 내가 웃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면서도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 그렇게 일러 주는데도 자꾸 자꾸 딴소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이, 세세생생보다 당장 지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야지, 세세생생은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아주 벗겨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우선이 아니라 세세생생일 텐데, 마음 한 생각을 고걸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우선에만 제대로 됐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유전이라는 게.

여기 올라올 때는요, '아이구, 그냥 이분들을 어떡하면 마음들이 모두 지혜롭게 벗어나게 할까?' 이 제불이라는 건 한마음이라는 얘기에요. 제불께서 더불어 같이 이분들을 그저, 정수리에 그냥 생수를, 그냥 수기를 줘서 빨리빨리 성장케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구,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럽니다. 올라오면서도 그게 슬퍼요. 나는 바쁜데 모두 꿈도 안 꾸고들 있거든요. 생각들도 안 해요, 아주. 이게 먹고사는 것보다도 제일 급한 건데. 그 도리를 알고 그렇게 해 나가면 먹고사는 거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인연줄이 닿든지 간에 연줄이 돼서 먹고살게 돼 있다고요.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걸림 없이 해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요다음 생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 공부라는 게 때로는요, 사정없는 그 결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을 때 얘깁니다. 갈림길에 있을 때 '아이구,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러고 딱 버릴 때 순간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주에서 그런 예가 있었죠. 피가 어디로 나오는지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온통 쏟아지는데 의사 박사들 수차에 들여다봐도 어디서 나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판가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남편은 또 아주 높은 저기에 있고 그러니깐 나 같은 건, 밀짚모자 쓰고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니니까 인제 우습죠.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아마 결사적으로…. 이건 박사들이 많이, 외국 박사들도 와서 봐도 그냥, 여기다 숨 쉬는 거 꽂아 놓고는 피가 그냥 자꾸 쏟아지니까 인젠 삼일 이틀 이렇게 생명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원해서 거길 갔어요. 그런데 나를 병원에서, 그 거지 같은 걸 들여보내겠소? 허허허.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라는 그분이 인제 저거 해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들어가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사흘 후에 퇴원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댁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지금 꽃아 놓고 죽느냐 사느냐인데. "사흘 후에 퇴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고요? 할 수 없겠죠? 할 수 없을 거예요. 웬만한, 웬만큼 그냥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저거 한 사람은 그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말이에요, "스님이 퇴원시키라면 내일 모래 퇴원시키죠." 이렇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뭐, 퇴원시키면 그냥 그때 죽는 거죠, 스님?" 그래요. 허허허. 그래서 아, 죽을지 살지는 나도 모르죠. 퇴원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것만 대답하라고 그런 거죠. 퇴원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정말 그날 퇴원해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나오고 나서 피가 딱 멈추고 그냥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디서 피가 나오나 하고 보니까 이 이마에 줄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해요. 그러니 누구도 그거는 빨리 알아낼 수가 없죠. 이 척추에다가 그냥 주사를 꽂아 놓고 빼서 조사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나오는 거죠.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그거를 이어서 잘해 주겠습니까? 이건 마음으로써 그, 아니, 마음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모든 게 축소한 그 참, 이…. 연구해서 이것이 병원에 하나씩 있으면 유전성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면서 다른 병도 다 나을 수 있는데…. 이런 말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무뜩 나네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게 들어가서 그냥 전깃줄 잇듯 이어야 되죠.

그러니깐 이 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의 마음이 이 천차만별의 보살들이에요. 보살들이라고 이름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그 이름들이 전부 깨친 부처님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만 명이 깨쳤다 하더라도 한 불이거든요. 일 불이에요, 전부. 그래서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부처님까지도 '내가 했다, 내가 앞으로도 한다, 내가 있다, 내가 부처다' 이런 소리도 절대 할 수 없는 도리가 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탓이에요. 자기가 얼마만치 자기 몸을 던져서 주인공에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해결이 나는 것이니까요.

닥치는 모든 경계를 그냥 공부로 아시고 근본 자리에 맡겨 놓으시면요,
스스로 옭매듭이 찰찰찰찰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은 그 풀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현불 논단 |

아무 것도 안 하기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유학 시절 방문한 친구 집서
보게 된 생활계획표에 '충격'
매일 1시간 '無'의 시간 가져

코로나19 확산에 언택드 강화
일과생활 경계 점점 모호해져

하루 30분 아무 것도 안 하자
산책 · 명상하며 성찰 시간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니, 희망을 갖고 서서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시간이다. 이 기간을 일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자칫 지치고 피폐해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성찰과 정진의 시간으로 채운다면 어떨까.

유학 시절 초창기의 일이니까 참 오랜만에 떠올려보는 기억이 있다. 영화 '닥터 지바고'의 오마 샤리프를 꼭 빼어 닮은 외모의 독일 친구 집에 어느 주말 처음 초대받아 방문하였다. 저녁을 먹고 올라간 다락방의 친구 책상 앞에 붙어있는 생활계획표에 눈길이 갔다.

그런데 이게 뭔가. 기상, 학교, 저녁식사, 과제. 그리고 그 다음의 일과가 '아무 것도 안 하기'라니.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의 일과가 '아무 것도 안 하기'라고 적혀있지 않은가. 신기하면서도 의아스럽고 궁금하여 도대체 뭘 하는 시간이냐고 물었다.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 시간에는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일은 안 한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란다. 평소에 하고 싶지만 학업에 밀려서 못하게 되는 전공과 무관한 제3의 분야의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를 쉬어주는 시간이라는 것. 조용히 앉아있기, 즉 멍때리기도 좋단다. 한마디로 '나'로 돌아가고,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여졌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에 이미 '쉼의 미학'을 알고 '휴식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적 충격이었다. '학교 과제와 읽어내야 할 수업 자료가 산더미 같은데….' 나로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과였기에, 뒤통수를 세게 한 방 두들겨 맞은 기분을 느낀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생활이 길어지면서 재택근무와 집콕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찮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혼이 급증하면서 코비드(COVID)와 이혼을 뜻하는 디보스(Divorce)가 합쳐진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기업들은 직원 복지와 생산효율성 증진 차원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구글은 매주 화요일을 '노 테크 나이트(No Tech Night)'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데, 이날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직원들에게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이 시간만큼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나 시간을 가족이나 취미 생활에 보내라는 요구이다. 일본의 한 기업은 재택근무자에게 노트북PC를 저녁 8시 30분이 되면 강제 종료되도록 설정하여 지급했다고 한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사람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게 진화한 신기술에 흥분하였다. 유비쿼터스 환경과, 끊김 없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다는 연결성에 찬사를 보냈다. 미래 디지털 환경 속에서 Z세대는 평생 17개의 직장, 5개의 직업, 15번의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본격적인 디지털 유목민의 신세계의 가능성이 열린 것을 기뻐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 역설인가? 시공을 초월한 끊김없는 연결은 우리를 디지털이라는 우리 안에 가둬버리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라는 족쇄를 차고, IT플랫폼이 깔아 놓은 랜선이라는 망의 덫에 걸려버린 것이 아닌가.

마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마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방문을 포기하고 온전히 집에 머물고 보니 일과 휴식의 경계는 더 모호해졌다. 그런 지금 하루 일과에 30분씩이라도 '아무 것도 안 하기' 시간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그 시간만큼은 집을 나서서 잠시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명상에 잠겨보는 것이다. 지금쯤 독일 친구의 생활계획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흘러간 세월 속에 많은 것을 버렸을 테지만 아마 '아무 것도 안 하기'라는 그 친구만의 '내면의 길 찾기'는 버리지 않았을 것 같다.

社 說

〈불교성전〉 활용 새바람 일기를

팔만대장경 속 부처님 말씀 중 현대인에게 전할 가르침을 추린 조계종 최초의 성전, 〈불교성전〉이 2월 24일 봉정과 함께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불교성전〉은 기존에 유통된 불교성전들이 한역대장경에 기초를 두었던 것에 비해 현대불교학의 연구와 번역 성과를 반영했다. 또 현대사회에 필요한 주제별 키워드를 선정하여 편찬된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각종 법회나 교육현장, 개인신행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불교계에는 조계종단본 불교성전은 없었지만 다양한 불교성전이 있었다. 종단본 불교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한 신행과 포교 활성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불교성전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못했던 것은 의식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 불교성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불교성전을 항상 가까이에 수지하고, 독송하며 공부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불교성전 수지운동과 함께 사찰이나 단체별로 다양한 불교성전 읽기 소모임 활성화, 독송대회, 독후감 대회, 캠페인, 활용 공모전 등이 이뤄져야 한다.

문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발간 초반부터 성전 활용을 위한 종단 차원의 TF팀 구성과 교계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범불교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먼저 불교성전의 해를 선포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성전읽기운동을 펼쳐야 한다. 포교, 신도, 직장직능단체들과 함께 법보시 운동을 통해 군부대와 병원, 교정시설 등에도 성전 보급을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 새로운 성전 탄생을 봉축하며, 새 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을 다짐해본다.

태고종, 과거 · 미래 잇는 도약 기대한다

태고종에 새 바람이 불고있다. 오랜 내홍과 분규로 흔들렸던 태고종이 이제 정상화, 안정화 단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올해 주요사업 계획들은 이 같은 태고종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월간 불교〉 복간을 통해 전통과 미래를 잇겠다는 의지가 눈에 띈다. 〈월간 불교〉는 최초의 불교종합잡지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권상로 스님이 창간했고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발행인으로 나서면서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긋기도 했다. 무엇보다 〈월간 불교〉는 태고종이 한국불교의 한 축으로서, 불교계 지식인들의 교류 토대이자 가감 없는 소통의 장을 펼칠 수 있었던 매개였다.

종단 혼란 속에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자연히 〈월간 불교〉의 역할도 축소됐으며, 휴간과 정간을 반복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태고종이 올해 〈월간 불교〉 복간을 결정한 것 만으로도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이 뿐 아니다. 태고종은 지난해에 이어 종단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토대로 한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위상 제고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다례재, 수륙재, 천도재 등 한국불교 고유의 의례의식 복원 및 확산을 위한 학술적인 뒷받침도 이어진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변화도 모색한다. 태고종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한국불교 신춘문에 신설 등은 대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간 반복된 혼란으로 인한 상처를 딛고 화합과 미래대안 모색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재도약할 태고종에 대해 불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바른 호흡

"사람의 목숨은 어디에 있을까요?"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인간은 목을 통해 숨을 쉬기 때문에 생명을 두고 '목숨'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호흡을 바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도 눈에 보이지 않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기(氣)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를 생산하고 거두는 것은 전적으로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통해서 성장하고 유지되지만 기는 호흡을 통해 길러지고 유지됩니다. 그만큼 호흡은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나라 때 천태 지의라는 훌륭한 스님은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호흡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째, 풍(風)은 호흡을 할 경우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천(喘)은 헐떡거린다는 것인데 호흡을 할 경우 소리가



그림 · 최주현

바람소리처럼 나지는 않지만 숨이 가쁜 것처럼 몰아쉬기도 하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아주 불안한 호흡을 말합니다.

셋째, 기(氣)는 호흡을 할 경우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따금씩 멈추어지기도 하고 고르지 않기도 하는 호흡을 말합니다. 넷째, 식(息)은 호흡이 일정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며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기를 모으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선을 할 때는 우선 몸을 단정하게 가지는 '조신(調身)'과 호흡을 잘 다스리는 '조식(調息)'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때 한 번 호흡하는 것을 두고 일식(一息)이라 하는데 이는 뱃속 깊숙이 하는 복식호흡으로 '단전'을 뜻합니다. 평상시의 호흡은 완전히 숨을 내 뱉지 못한 채 산소를 흡입합니다. 이것은 혈액을 맑히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호흡은 평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순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본래 의도에서 어그러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가늘고, 고르게,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호흡의 3대 원칙입니다.

이른 아침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마음껏 숨을 마시고 내뱉는 자유로운 호흡을 자주 해보세요. 〈월든〉을 쓴 소로우는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바른 호흡을 예약하세요.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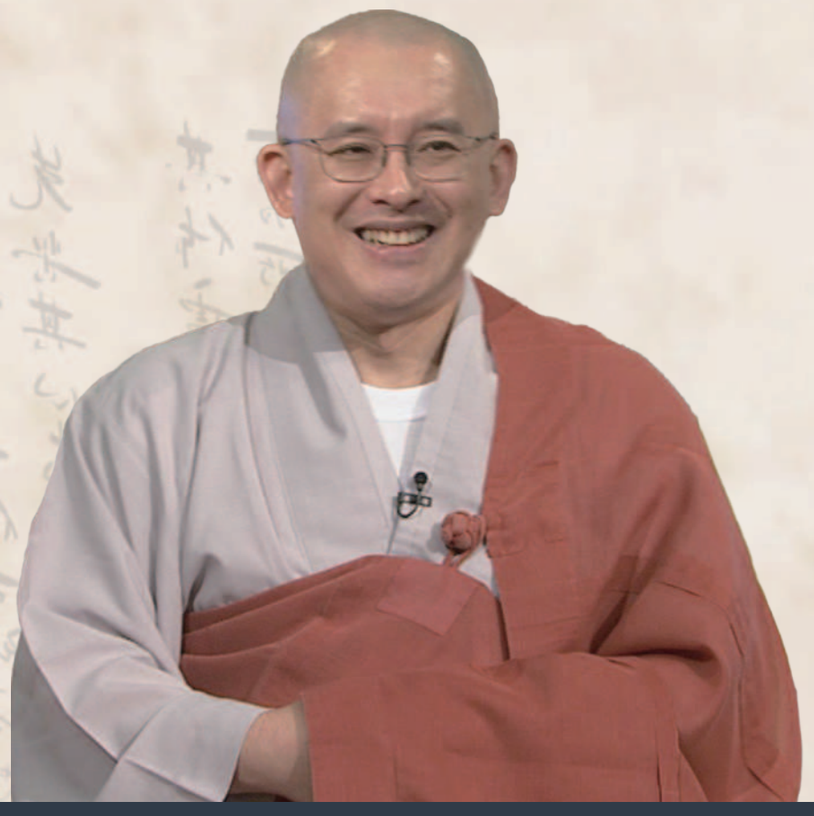
-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탄허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문광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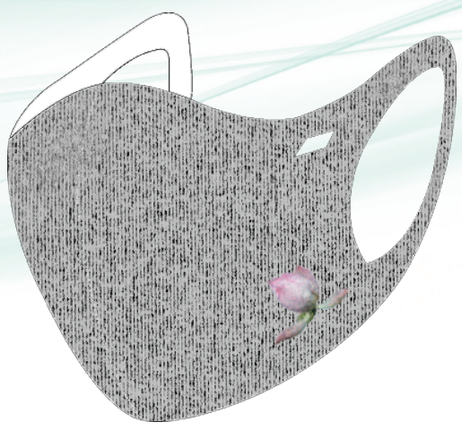
방송시간 | 매주 월 14:00, 23:00, 수 01:0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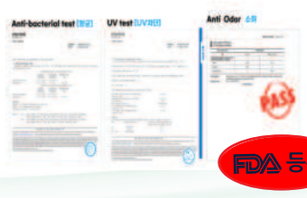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